



###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2年 2月

碩士學位 論文

<邊城>의 人物分析을 통해서 본  
主題研究

朝鮮大學校 大學院

東洋學科(中語中文學專攻)

吳善熙

<邊城>의 人物分析을 통해서 본  
主題研究

subject research through the <biancheng>  
character analysis

2012年 2月 24日

朝鮮大學校 大學院

東洋學科(中語中文學專攻)

吳善熙

<邊城>의 人物分析을 통해서 본  
主題研究

指導教授 韓宗完

이 論文을 文學 碩士學位申請 論文으로 提出함

2011年 10月

朝鮮大學校 大學院

東洋學科(中語中文學專攻)

吳善熙

# 吳善熙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委員長 朝鮮大學校 教授 曹喜武 (인)

委員 朝鮮大學校 教授 李金恂 (인)

委員 朝鮮大學校 教授 韓宗完 (인)

2011年 11月

朝鮮大學校 大學院



## 〈目 次〉

### ABSTRACT

第 1 章 序論 .....	1
第 1 節 研究 動機 및 目的 .....	2
第 2 節 研究範圍 .....	4
第 2 章 沈從文의 生涯와 文學觀 .....	7
第 1 節 沈從文의 生涯 .....	7
第 2 節 沈從文의 文學觀 형성 .....	10
1. 成長期(1902~1921) .....	11
2. 創作期(1922~1948) .....	13
3. 試鍊期(1949~1988) .....	15
第 3 章 <邊城>의  창작배경과 동기 .....	16
第 1 節 社會的 背景 .....	17
第 2 節 當時文壇의  경향 .....	18
第 3 節 <邊城>의  창작동기 .....	20
第 4 章 <邊城>의  인물형상 및 주요소재의 특징 분석 .....	23

第 1 節 주요 인물형상 .....	23
1. 翠翠 .....	23
2. 天保와 傩送 .....	31
3. 벧사공 .....	37
4. 順順 .....	45
第 2 節 주요소재의 특징 .....	48
1. <邊城>속의 전통문화 .....	48
2. ‘물’의 상징성 .....	51
2.1 <邊城>과 강물 .....	54
2.2 강물과 생명 .....	55
2.3 강물과 애정 .....	56
2.4 강물과 죽음 .....	57

## 第 5 章 <邊城>의 인물형상을 통한 주제

분석 .....	59
第 1 節 原始自然의 生命力 .....	60
第 2 節 純粹 共同體의 삶 .....	62
第 3 節 <邊城>의 창작 특징 .....	66
1. <邊城>의 불안정성 .....	66
2. <邊城>의 象徵性 .....	67
3. <邊城>의 抒情性 .....	60



第 6 章 結論 .....71

參考 文獻 .....74

# ABSTRACT

subject research through the <biancheng>  
character analysis

OH SUN HEE

Adviser : Prof. HAN JONG WAN. Ph.D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Modern literatures of China came to bear its fruits in 1930s with the start of inflow of the Western literatures. Modern literatures of China which was started from the Cultural Revolution accelerated with May 4 Movement, since then, it brought fierce controversy by being transfigured to literatures of Second Sino-Japanese War and revolutionary literature. The thing of the literary movement was resulted from cognition for feudal periodical situations at that time, so the innovative thoughts came to made mainstreams all the time, and relatively, the works of writers who insist artistic value and purity of literature could be inferior.

Among them, the writer who expressed the beauty of pure arts best with the thoughts before the age was Shen, Cong Wen (沈從文). Many works of Shen, Cong Wen (沈從文), the work which expressed his values for literature best was <Bian-Cheng (邊城)>, that is his major work; by considering the situation of the literary world of that time, it is considered that it is natural that the work like that gets attention.

Researches for <Bian-Cheng (邊城)>, the major work of Shen, Cong Wen (沈從文) has been developing in and out of Korea actively, and for it is a folk novel with strong local color, so various research results such as consciousness of writer, artistic characteristics, language, characters, thoughts, researches related to local climate etc come out. Only, most of them made mainstream of fragmentary and detailed researchers, so it leaves inconvenience for comprehensive consideration. Therefore, in this study, it would be made progress of thematic research through comprehensive analysis for the writer and analysis of characters' forms, and do comprehensive consideration for the writer and the work.



## 第1章 序論

詩와 散文과 함께 문학의 대표 장르 중 하나인 小說은 작자가 자기의 눈을 통해 본 현실사회와 인생을 허구로 재구성하여 서술한 創造的 이야기이다. 소설은 이미 創造的이고 虛構的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장르보다 시 대상을 반영하는 데 있어 뛰어난 문학 장르 중 하나이다. 따라서 현실을 바탕으로 한 여러 소설들이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로 사랑 받고 있는 것도 이러한 소설의 특성이 바탕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가 어지럽고 힘든 시기에 이러한 소설들은 독자들에게 힘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인 반영이 문학 작품의 藝術性을 가리게 되는 경우도 있으며, 문학 작품으로서의 소설이 아닌 즉 純粹 문학이 아닌 정치적 색채가 강한 논평으로 변질되기도 한다.

1930년대는 정치적으로 중국대륙 전체가 혁명에 휩싸였던 격변의 시대였다. 국-공 내전의 격변기로 중국 사회의 보수 세력이 결집된 국민당과 혁신적인 생각으로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20대 전후의 국민당과 공산당이, 보수와 혁신의 대결 속에 혼전을 거듭하고 있었지만, 사회저변의 민중들은 아마 한 시대의 고통, 환희, 절망과 열정을 모두 온 몸으로 적나라하게 체험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1930년대의 작품 속에서는 이러한 ‘시대의 비극’이 생생히 살아있다. 이후 오랫동안 중국의 소설은 이러한 경향이 강했으며, 순수 문학을 지향했던 문인들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평론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였다.

중국에 있어 현대문학의 성립과 발전은 政治的·社會的 요인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발전되어왔다. 물론 한시대의 문학작품이라는 것이 당시의 정치적·사회적 영향을 받는 것이 어찌보면 당연할 지도 모르겠으나 중국의 경우는 조금 특별하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현대문학 초기의 문학운동은 당시의 封建的 시대 상황에 대한 인식과 비판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革新思想을 포함하는 문학 작품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런 작품들과는 상반되게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인간의 삶과 그런 인간들의 심성을 그리며 30년대 소설의 새로운 지

평을 열어나간 대표 작가가 바로 ‘沈從文’이다.

1930년대 가장 활발한 창작 활동을 했던 그는 1949년 中華人民共和國이 수립된 이후 작품활동을 중단하고 돌연 歷史博物館에서 중국 전통복식에 대해 연구 하다가 더 이상의 날개를 펴지 못한채 작품 세계를 마감하였다.

沈從文의 여러 대표작 가운데 단연 최고라고 할 수 있는 <邊城>은 그가 품고있던 사상의 정수와 그가 추구한 理想的인 삶이 곳곳에 녹아 있는 작품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沈從文의 창작내용과 더불어 그의 대표작인 <邊城>을 통해 沈從文의 문학세계를 논해보고자 한다.

## 第1節 研究動機 및 目的

중국 現代文學은 西洋文學의 流入이 始發이 되어 1930년대 그 결실을 맺어가기 시작했다. 文學革命으로부터 시작된 중국의 현대문학은 5.4운동으로 더욱 가속화 되어 이후 革命文學과 抗日戰爭의 문학으로 變貌해 가면서 격렬한 論爭을 불러일으킨다. 文學運動이라는 것이 당시의 封建的 時代狀況에 대한 認識으로부터 基因했기에 줄곧 혁신 사상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고, 문학의 예술성과 순수성을 주장하는 작가들의 작품은 相對的으로 열세에 놓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가운데서도 시대를 앞선 사상으로, 순수 예술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표현 했던 작가가 바로 沈從文이다. 沈從文의 여러 작품 가운데 그의 文學觀을 가장 잘 표현 한 작품이 바로 그의 대표작인 <邊城>으로 당시 文壇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의 이와 같은 작품이 주목을 받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고 여겨진다.

본고에서 연구하려고 하는 中篇小說 <邊城>은 원래 <國聞周報>에 連載되었고, 1934년에 生活書店과 開明書局에서 출판되었으며, 이후 영화로도 제작되어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정치적 종속을 거부했던 그의 문학적 품모로 인해 한때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작가라는 비판을 받으며 부정적으로 평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왜곡된 구도는 1978년 '중국공산당 제11기 중

앙위원회 제3차 전체 회의(3中全會)'에서 '實事求是'와 '思想解放', 그리고 '拔亂反正'이라는 구호가 제기되면서 변화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당시 인문, 사회과학 등 제반학문 분야에서 과거에 이룬 작업들에 대한 반성이 촉구되었고, 그 결과 과거 '좌' 편향적 영향에 의해 왜곡되고 금기되던 작가와 작품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시도되면서 상황은 크게 전환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1980년대에 그에 대한 再評價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여러각도로 연구가 진행되었고 문학 작품 자체의 연구뿐 아니라 철학, 사회, 역사, 문화에 이르는 연구로 확대되어 '沈從文붐'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이러한 재평가는 곧이어 1985년 전후 출현한 '뿌리찾기(尋根) 문학' 속에서 이른바 '沈從文 熱氣'로 이어지며 한층 활발한 연구가 전개되었다. 沈從文연구에 대한 붐으로 인해 沈從文과 그의 문학세계는 鄉土文學 작가, 少數民族 작가, 동서양의 문화 세례를 받은 작가, 서정소설가 등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되었고, 서구 작가들을 비롯한 중국 내 작가들과의 比較연구도 진행되기에 이른다.

한편 국내에서도 1987년부터 沈從文이 소개되기 시작해 지금까지 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연구는 沈從文에 대한 통찰보다는 몇몇 대표작품을 통한 <沈從文 文學의 鄉土意識 研究- 小說(邊城)을 中心으로><sup>1)</sup>, <沈從文의 (邊城), (長河) 研究><sup>2)</sup>, <邊城 主題研究><sup>3)</sup> 등과 같은 단편적인 연구 경향에 머물렀었다. 그러다 근래에 나온 <沈從文 後期 鄉土 小說의 現實認識><sup>4)</sup>, <沈從文 小說研究-물의 이미지를 중심으로-><sup>5)</sup> 등에 이르러 비교적 많은 자료와 현대적 이론을 바탕으로 沈從文연구에 대한 새로운 접근들을 시도하였다.

'沈從文小說' 연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邊城>에 대한 연구로는 徐鳳

---

1) 서봉식, <沈從文 文學의 鄉土意識 研究- 小說(邊城)을 中心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2) 최순미, <沈從文의 (邊城), (長河) 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3) 안승웅, <邊城 主題研究>,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4) 김성동, <沈從文 後期 鄉土 小說의 現實認識>,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5) 황보정하, <沈從文 小說研究-물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植<sup>6)</sup>, 崔順美<sup>7)</sup>, 林慈英<sup>8)</sup>, 方準浩<sup>9)</sup>, 안승웅<sup>10)</sup> 등의 논문이 있다. 徐鳳植은 <邊城>의 향토성에 초점을 두고 작가의 美學思想과 작품의 藝術性에 대한 연구를 하였고, 崔順美는 構成, 主題, 人物, 修辭技巧의 측면에서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하였으나 다소 구체적이지 못하다. 인물분석 면에서도 단편적이며, 주제에서도 善한 인간 本性의 追求라는 한 측면에서만 연구하였다. 林慈英은 <丈夫>, <貴生>, <邊城>의 세 작품을 중심으로 人性의 측면에서 작품을 분석함으로써 人性美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시도했다. 方準浩 역시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하고 있으나 인물의 분류에 다소 무리가 있는 분석을 하였다. 안승웅은 構成과 主題를 중점으로 연구 하였는데, 주제의 연구에 있어 심도 있는 분석을 하였다.<sup>11)</sup>

沈從文的 대표소설 <변성(邊城)>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방색이 강한 향토소설인 만큼 지역 풍토, 사상, 인물, 언어, 예술적 특징, 작가의 의식 등 다양한 연구 성과들이 나오고 있다. 다만, 대부분이 단편적이고 세부화 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어 종합적인 고찰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때문에 본고에서는 작가에 대한 종합분석과 인물 형상 분석을 통해 주제연구를 진행하고 작가와 작품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을 해보고자 한다.

## 第2節 研究範圍

그의 초기 작품들은 沈從文 자신도 인정하듯이, 전체적으로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일정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 또한 성숙기로 접어든 후기 소설은 초기 소설과 마찬가지로 주제적 측면에서 향토소설과 도시소설로 나누어 지는데, 이시기의 소설은 감상적, 낭만적 태도에서 벗어나 현실 인식으로 나아

6) 徐鳳植, <沈從文 文學의 鄉土意識 研究- 小說(邊城)을 中心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7) 崔順美, <沈從文的 (邊城), (長河) 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8) 林慈英, <沈從文的 湘西小說의 人性美 研究-(丈夫), (貴生), (邊城)을 中心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9) 方準浩, <邊城에 나타난 鄉土的 浪漫性 研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10) 안승웅, <변방의 어느 마을(邊城) 主題研究>,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11) 金恩珠, <沈從文小說 (邊城) 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p.4 개인용



가는 변화를 보인다. 따라서 향촌의 부정적인 면이나 변화를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는 비판을 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향촌의 부정적인 면이나 변화를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는 비판을 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향촌을 제재로 한 소설에서 변함없이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름다운 향촌의 풍경과 건강한 인물들의 모습이다. 그 이유는 沈從文의 문학 창작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중국의 향촌으로 향했기 때문인데, 도시생활의 경험을 통해 관찰한 도시의 모습은 그가 향촌으로 관심을 돌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 된다.

도시의 생활은 고통과 고뇌의 나날이었다. 또한 그곳은 적막감과 소외감만을 불러일으키는 융화될 수 없는 공간이었다. 이러한 향촌과 도시라는 두 지역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그는 자신이 바라는 길을 제시하게 된다. 그가 향촌과 도시의 경험을 통해 얻은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고루 살펴 얻어낸 결론이 바로 <邊城>에서 沈從文이 표현하고자 한 주제라고 볼 수 있다.

<邊城>은 중국 현대문학 대표작가인 沈從文의 대표작이자 중국소설계에서 최고의 작품으로 꼽히는 소설로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굳건한 시골 사람들의 순수한 사랑을 묘사하고 있는 낭만주의 향토소설이다. 본고에서는 작품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위해 작자의 생애와 문학관을 시기별로 분석하여 정리하고, 소설의 창작배경은 물론 당시의 사회적 배경과 문단상황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며, 이를 바탕으로 작품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작가인 沈從文이 <邊城>을 통해 추구하며 표현하고자 했던 湘西지역의 서정적, 낭만적인 정서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순수한 사람들의 원시적 생명력의 추구, 공동체적 삶의 추구 등 주제의식에 대한 연구를 위해 소설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형상에 대한 분석도 시도하려한다.

本稿에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검토하면서 소설 <邊城>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진행 하겠다. 本稿의 연구 과정은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우선 第1章의 연구동기 및 목적과 연구범위를 밝힐 서론에 이어 第2章에서는 沈從文의 생애 및 문학관 형성과정을 ‘成長期’, ‘創作期’, ‘試鍊期’로 구분하여 작가와 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서술 하겠다.

第3章에서는 沈從文의 독특한 문학 사상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社會的背景’, ‘當時 文壇의 경향’으로 나누어 알아보고, <邊城>의 창작의 동기에 대한

분석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第4章에서는 <邊城>의 사건 내용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주요 인물들을 각각 분석하고 주요소재의 특징으로 <邊城>속의 전통문화에 대해 간략히 논의한 뒤, ‘물’의 상징성을 통해 <邊城>속에서의 ‘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第5章에서는 原始的 生命力을 지닌 翠翠 등 젊은이의 형상과 共同體的 삶을 追求하는 鬻事公 등의 형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主題思想을 살펴보고, <邊城>의 불안정성, <邊城>의 象徵性和 抒情性을 통하여 작품의 예술성에 이르기까지 서술하고, 第6章에서 이를 총결하겠다.

## 第2章 沈從文的 生涯와 文學觀

### 第1節 沈從文的 生涯

沈從文은 漢族과 苗族의 혼혈이다. 그의 조부인 沈洪富는 貴州提督을 지냈으나 요절하여 자식을 두지 못하였다. 그의 동생인 沈洪芳과 苗族의 여인사이에 두 아들이 있었고 그 중의 한명이 형 沈洪富의 양자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가 沈從文의 아버지였다.

아버지인 沈從嗣는 1911년 鳳凰縣의 反淸 무장 봉기를 지도하기도 했으며, 1915년 袁世凱를 암살하기 위한 암살단을 조직하는 등 활발한 군사활동을 전개했다고 한다. 따라서 그가 고향에서 병사하기까지 각처를 떠돌아 다녔기 때문에 집안일과 자녀 교육은 그의 아내인 黃英이 도맡아 해야만 했다.

沈從文의 어머니인 黃英은 鳳凰縣 지역에서 유일한 서생 집안의 딸로서 어려서부터 많은 책을 접하였고, 형제를 따라 병영 생활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견식 또한 넓은 여성이었다. 따라서 沈從文의 어린 시절은 아버지 보다 어머니에게서 더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沈從文 자신도 후에 본인의 성격이나 기질은 아버지 보다는 어머니로부터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술회하였다.

沈從文은 이러한 가정환경 아래에서 6세되는 해부터 私塾에서 <論語>, <尙書>, <詩經> 등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곧 이러한 판에 박힌 암기 위주의 교육 방식과 엄한 체벌에 염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후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학생으로부터 수업을 빠지는 방법을 배운 후 무미건조한 고전경서에서 탈출하여 자연과 접하게 되는 기회가 많아졌다.

1911년 沈從文이 9살 되던 해에 그는 잊지 못할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하게 된다. 1911년 10월10일의 武昌 봉기를 시작으로 辛亥革命이 일어났고, 그 충격은 빠르게 湘西 지방까지 미쳤다. 그러나 湘西 지방에서의 1차봉기가 실패로 끝나게 되었고, 1912년 革命軍이 승리하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살해당했다. 湘西 지방의 淸朝 군인들은 한달여 동안 봉기에 가담여부도 가리지 않은 채 무고한 苗族 주민을 무참히 살해했다.

그는 9살의 어린 나이에 정치권력에 의해 인간의 생명이 무참히 짓밟히는

것을 목격했고, 이로부터 정치에 있어서는 무관심 하다 할 정도로 비정치적인 색채를 띠게 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15세 되던 1917년 9월에 沈從文은 집안의 분위기와 주위의 권고로 軍入隊를 하게 된다.<sup>12)</sup> 이로부터 1922년 7월 그가 北京으로 갈때까지 약 6년에 걸친 軍生活이 시작된다. 당시는 각 軍閥이 곳곳에서 割據하고 그들 사이의 전투가 격렬했던 시기였기에 군벌 세력의 흥망성쇠에 따라 부대는 각 지방을 이동하였다.

沈從文은 군에 입대 후, 湖南, 四川, 貴州 세 省의 변경지역과 沅水유역을 전전하면서 변경의 풍속과 생활에 대해 많은 지식을 얻게 되고 군인, 농민, 선원, 상인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접촉 하면서 삶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혀 후에 창작의 원천이 될 인생경험을 하게 된다.

보충병이라는 신분을 가진 沈從文이 軍생활에서 접한 인물들은 말단서기와 같은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었고, 주둔지에서 접촉한 민간인들 또한 농민, 선원, 기녀 등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었으나 沈從文은 그들에게서 거칠고 몽매한 면을 볼과 동시에 그 속에서 투박한 생명력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의 소박한 바램과 따뜻한 인간의 정을 체험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군벌부대의 살인, 방화, 부녀자 겁탈 행위를 직접 경험하면서 원인도 모른채 비참하게 희생당하는 농민들에게 무한한 동정의 감정을 품게 되었다.

1922년 沈從文은 湘西 군벌의 우두머리인 陳渠珍 사령부의 서기로 일하고 있었다. 어느날 沈從文은 신문사로 파견되어 校訂을 보게 되었다. 신문사에서 沈從文은 長沙에서 온 한 노동자를 알게 되는데, 그는 5.4운동의 영향을 받은 진보적 노동자였다. 沈從文은 그로부터 <新潮>, <改造>, <創造季刊> 등의 간행물을 빌려볼 수 있었고, 곧 책 속에 빠져들고 말았다.

우연한 기회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던 그는 그 후 지방정부가 유학생을 파견한다는 것을 알고 새로운 것을 배우겠다는 일념으로 北京으로 갈 계획을 세웠다. 그 해 7월초, 40여 일의 병고를 치른 후 그는 정식으로 자신의 계획을 지방정부에 제출하였으며, 지방정부는 그를 파견하기로 결정하고 학자금 지원까지 약속했다. 7월 중순 그는 고향인 湘西 지방의 생활을 정리하고 새

---

12) 鳳凰縣은 淸中葉에서 淸末까지 약 90여 년간 약80 여명의 장군을 배출시킨 지역으로 유명하며, 예로부터 ‘乾州의 城, 鳳凰의 兵사’ 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이곳 출신 병사들이 용감했다고 한다. 작가 沈從文은 이런 주위환경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수 있다.

로운 꿈을 안고 北京으로 향하게 된다.

北京에 올라온 沈從文은 北京大學 2년제 國文班에 응시하였으나, 신식 교육을 받아보지 못한 그는 새로운 용어와 문장부호까지 몰라 0점을 받고 낙방하였다. 그는 이후 北京大學 부근의 아파트로 거주지를 옮긴 뒤, 北京大學 청강생으로 들어가 새로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923년 湘西 지방 정부에 동요가 일어나 학자금의 원조가 끊어졌고, 그의 생활 또한 어려워졌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갈 것인가, 北方軍閥에 몸을 담을 것인가를 고민하던 중, 작가의 길이라는 第三의 선택을 하게 된다.

작가의 실을 선택한 沈從文은 1924년부터 본격적인 습작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는 이 시기 각 처의 출판사에 투고하였지만 어느 출판사 하나 그의 글을 실어주지 않았고 그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다. 배고픔과 추위로 생활의 어려움이 극에 달한 그는 마침내 당시 문단의 유명 인사였던 郁達夫에게 편지로 어려움을 호소했고 郁達夫는 그를 직접 찾아와 격려해주었다.<sup>13)</sup> 이로부터 그는 徐志摩, 胡適 등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그해 11월 배고픔과 추위에 시달리면서도 지속적으로 습작을 했던 그는 마침내 <辰報·北京欄>에 글을 발표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약 20여년간 본격적인 창작활동이 시작되었다. 1926년 희극, 소설, 산문을 모아 <鴨子>를 발표한 후, <辰報副刊>, <現代評論>, <小說月報> 등의 간행물에 시, 소설, 산문 등을 지속적으로 발표하였다.

沈從文의 문학 생애 중 초기 습작시기에 해당하는 1928년까지는 자신의 고향인 湘西지방의 생활 경험과 도시 생활에서 느낀 감정들을 솔직하게 토로하는 형식으로 작품활동을 하였다. 습작시기인 만큼 이 시기의 작품들은 시, 소설, 산문, 희곡 등 제재가 다양했고 자신에게 적합한 문학체제를 정립하지 못하였다.

1928년 상해로 간 후 그 다음해 胡也頻, 丁玲과 함께 잡지 <紅與黑>, <紅黑> 등의 잡지 편집활동을 하면서 계속적인 창작활동을 했는데, 이때부터 그의 창작은 양적인 면에서 뿐만아니라 질적인 면도 성숙하기 시작 하였다.

1930년, 1931년 沈從文은 武漢大學과 靑島大學에서 강사생활을 했는데, 이

---

13) 郁達夫는 沈從文의 숙소로 직접 찾아와 격려해 주었고, 그날 ‘給一個文學青年的公開狀’이라는 유명한 글을 지었다.

기간은 그에게 생활의 여유를 주었고, 그의 문학세계를 심화시킬 수 있게 하였다. 그는 해변에서 한적한 생활을 보내며 자신의 과거에 대한 회고와 인생에 대한 사색을 통해 인생관을 확립하였고, 郁達夫, 許地山, 老舍 등의 소설을 비평하면서 자신의 창작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자신의 문학관을 확립할 수 있었다.<sup>14)</sup>

1945년 중일 전쟁이 끝난 후 沈從文은 北京大學 교수로 부임하였고 <大公報>, <益世報> 등의 문학란 편집을 맡아 창작 활동과 후진 양성에 힘썼다.

1948년 12월 中國人民解放軍 東北野戰軍이 北京을 포위하였을 때, 그는 北京大學의 진보적 성향을 지닌 학생들의 권고를 받아들여 北京에 남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과거 新月派와 관련이 있었고, <新月>에 작품을 발표하였던 까닭으로 자본주의 작가로 간주되어 정치적 탄압을 받게 되었다. 1949년 봄, 그는 정치적 탄압으로 인하여 자살까지 시도하였으나 미수로 그쳤고, 北京大學 교수직을 박탈당했다. 沈從文은 이러한 상황에서 문학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었고, 1951년 歷史博物館으로 보직이 나자 이후 문학활동을 중단하고 전통유물과 古代 服飾에 대한 연구정리에 전념하게 되었다. 文化大革命시기인 1969년 下放되어 湖北省 咸寧에서 농장 노동을 하던 시기에도 그는 고대복식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였다.<sup>15)</sup>

1978년 복권되어 中國社會科學院 역사 연구원으로 임명되었고, 제4차 전국 文藝工作者大表會議에서 작가로서의 신분을 회복하게 되지만 문학 창작은 더 이상 하지 않았다. 그 후 1988년 5월10일, 그의 굴곡 많았던 인생은 北京에서 조용히 임종을 맞게 된다.

지식인이었기에 고뇌가 많았고, 사색 할 수밖에 없었던 沈從文은 격동의 시대에서도 참된 것과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던 신념이 강한 작가였다.

## 第2節 沈從文的 文學觀 형성

14) 이는 ‘我怎麼創造故事, 故事怎麼創造我’라는 부제가 달린 그의 산문<水雲>에 잘 나타나고 있다. <水雲>은 沈從文 자신의 이전시기 창작활동을 우연, 감정, 이성, 의지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하고 있다. 《沈從文文集》 제10권, 廣州:和成出版社, 1983, pp263-298 참고

15) 沈從文의 고대복식에 대한 연구서로서는 1981년 출간된 <中國古代服飾研究>가 있다. 《沈從文研究資料》하권, 廣州:花出城版社, 1991, p.1031 참고

일반적으로 작가의 고향, 출신, 어린 시절의 생활 등은 이후의 창작에 뚜렷한 영향을 남기게 된다. 문학은 ‘價値있는 인간적 體驗의 기록’<sup>16)</sup>이라는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作品은 作家의 인생 체험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沈從文의 문학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인생과 함께 그의 문학관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상술한 沈從文의 생애에 이어 그의 문학관 형성 과정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그의 문학생애는 대체로 ‘成長期’, ‘創作期’, ‘試鍊期’로 구분될 수 있다.

### 1. 成長期(1902~1921)

沈從文의 고향인 湘西 지역은 湖南省의 苗族 거주지역 이었다. 苗族은 주로 雲南, 貴州, 廣西, 湖北, 湖南의 각 省에 분포되어 있는 소수민족이며 湘西는 苗族과 漢族 사이에 언어와 생활 습관의 차이로 말미암아 항상 충돌이 일었던 지역이었다. 漢·苗族 혼혈아로 태어난 沈從文은 당시의 세속적인 관념과는 반대로 오히려 자신에게 苗族의 건강한 피가 흐르고 있다고 자부심을 느꼈으며 소수민족의 운명에 대해 크게 염려하고 소수민족 문제에 독자적인 견해를 제시했다. 이는 모두 그가 苗族과 혈연관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sup>17)</sup>

沈從文에게 있어 어린시절에 대한 기억은 그의 삶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그의 문학관 형성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그의 어린 시절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고향 湘西에 대한 기억과 더불어 시작된다. 그의 고향 湘西는 빼어난 산수를 자랑하는 아름다운 곳이었으며, 또한 그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순박한 人情美와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人性美는 그의 성품을 형성시켰고, 나아가 문학 작품에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 이런 어린 시절의 기억은 동시대의 작가와는 다른 문학적 특징을 보이는 기제가 되었다.

湘西의 자연환경은 沈從文에게 신비롭고도 신선하게 다가왔다. 그의 환상적이고 낭만적인 정서는 이러한 湘西의 자연이 가져다 준 것이다. 이와 같이 자연과 함께한 자유로운 생활은 책으로부터 배울 수 없는 훨씬 큰 무엇을 배우게 된다. 그 무엇이란 바로 沈從文의 독특한 감정과 사상이다. 그의 진실되

16) 崔載瑞 《文學原論》，春潮社，1963，p.11

17) 凌宇，《從邊城走向世界》，三聯書店，1985，p.27

고 순수한 감정은 스스로 그러한 꾸밈없는 아름다운 자연의 경물 속에서 배우는 것이고, 다양한 작품 속에서 하나로 일관되는 그의 사상은 湘西의 자연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인간들의 인생형식이나 생활상에서 배우게 된 것이다.

沈從文的 어린 시절 모습은 보통 사람들과 다를바 없다. 아이들과 함께 장난을 치며, 메뚜기를 잡아 구어먹고, 나무 위에 올라가 나무 잎을 흔들고, 강가에서 물놀이 하며, 뛰어 놀면서 더럽혀진 옷을 입고서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가 야단맞는 어린 시절의 기억과 湘西 자연의 경물과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사상을 키우게 되었고, 이후 작품 창작으로 이어지게 된다. 소설에서 나타나는 서정적이고, 詩化된 형태나 산문에서 진솔하게 배어난 湘西 자연의 경물과 생활상은 그의 감정과 사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

사숙과 같은 전통적 교육과 신식 교육을 모두 거부한 沈從文에게 있어 ‘자연’은 바로 그의 평생 스승이었다고 할 수 있다.

沈從文의 思想과 감정은 책에서 배운 것이 아닌, 湘西 자연에서 體得한 것이었다. 私塾에서 도피하면서 만나게 되는 湘西의 자연은 沈從文에게 신선한 소리와 색과 성향을 가져다주었고, 이를 통해 생활과 지혜를 인식하도록 하였다. 이런 인식은 자연에 대한 경외와 고향 湘西에 대한 애정에서부터 시작되어 감정과 사상으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그의 사상과 감정은 인생과 사회에 대한 沈從文 특유의 가치 체계를 이루도록 하였다.

기존의 관례와 관념에 따르지 않고 그것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인생의 먼 장래를 위해 응시하는 모습 속에서 그의 사상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1911년 湘西의 무고한 농민들이 무참히 살해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沈從文은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革命의 인상은 권력의 남용으로 인간의 생명이 박탈당하는 모습을 통하여 정치와 권력에 대한 혐오감과 불신을 가져다주었다.

1917년 군에 입대한 沈從文은 또 다른 인생의 단면을 보게 된다. 그는 고향을 떠난 후 湖南, 貴州, 四川 등 20여 縣을 전전하면서 고통스러운 軍생활을 경험했으며, 이들 邊境 지대의 부두, 山村의 여러 사람과 접촉하면서 다양한 인생의 경험을 넓혀갔다. 적지 않은 견식과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歷史觀과 사실에 대한 의식을 확대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기는 沈從文的 文學生涯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1921년 5.4운동의 여파는 湘西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결과 湘西에는 학교와 신문사가 설립되었는데, 沈從文은 保靖의 한 신문사에서 원고 교정을 맡아보던 경에 진보적인 사상의 인쇄공을 만나게 되며 새로운 사상과 세계에 눈을 뜨게 된다. 변경에서 소학교만을 졸업했던 그에게 새로운 문물과 사상은 지식에 대한 욕구를 불러일으켰고, 자신이 처해 있던 상황에서 탈출을 모색하기에 이른다. 그리하여 1922년 沈從文은 湘西를 떠나 새로운 희망으로 北京에 진출하기에 이른다.

## 2. 創作期(1922~1948)

1922년 沈從文은 湘西를 출발하여 北京에 이른다. 湘西에서 北京으로의 진출은 단지 수천리의 거리를 뛰어넘는 거리상의 이동만은 아니었다. 몇 시대를 뛰어 넘은 새로운 역사공간으로의 진출이었다. 당시 北京에서 沈從文은 같은 호남 출신인 胡也頻, 丁玲<sup>18)</sup>과 함께 北京대 청강생으로 학업을 시작했다.

그는 미래에 대한 꿈을 안고 추위와 배고픔을 참으면서 창작을 시작한다. 2년이 넘는 창작시간을 거쳐 차츰 그의 작품은 徐志摩, 胡適, 陳源 등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그의 작품은 각종 필명으로 北京의 간행물에 실리기 시작했다. 1925년 <現代評論>, <語絲> 周刊에 그의 단편소설, 산문, 시 등을 발표함으로써 본격적인 작가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러나 北京에서의 도시생활은 그의 미래에 대한 동경과 꿈을 만족시켜줄 수 없었다. 도시문명의 부패, 영속한 삶은 시골 사람의 기질과 갈등을 일으켰고 그는 현대의 정치, 문명에 대해 회의하는 입장에서 창작을 시도했다.

沈從文的 초기 창작은 주로 생활 유지를 위한 습작시기로 자신에게 맞는 문학체계를 확정하지 못하였으며, 주로 자신의 고향인 湘西 생활의 추억을 회상한 것과 도시인의 공허함과 무료함을 묘사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

18) 沈從文은 이들과 비록 文藝觀과 思想에 있어 다른 노선을 걷게 되지만 인간적으로 긴밀한 교제를 지속해 갔다. 沈從文은 그들에 대한 傳記로서 <記胡也頻> (1932), <記丁玲> (1935)을 발표하기 이르렀다.

1927년 4월 沈從文은 北京을 떠나 당시 출판 활동의 중심지인 上海로 이동한다. 당시에 상해 문단은 革命文學論爭으로 創造社와 太陽社 그리고 <語絲>의 魯迅 등이 서로 공방전을 하던 중이었다. 이때 新月社<sup>19)</sup>의 梁實秋가 <文學與革命>이라는 글을 발표하여 革命文學論爭을 비난했다.<sup>20)</sup>

당시 沈從文은 좌익 문예운동에 대하여 여러차례 비평을 가했다. 그는 일관되게 문예를 완전히 정치적 투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반대하였는데 그의 좌익 문예운동에 대한 비평은 단지 문예의 정치적 경향과 혁명을 선전하는 정치 사상에만 중점을 둔 것은 아니었다. 그는 일부 작가가 단지 사상만을 요구하며 예술은 요구하지 않고, ‘피’와 ‘눈물’ 만이 있으며, 진실되게 심오한 인생의 묘사가 없고 사상만을 선전하며 예술을 중시하지 않아서 야기된 관념화와 공식화 경향에 대하여 비난하였다.<sup>21)</sup>

1931년 靑島에서의 생활은 沈從文의 문학인생에 큰 변화를 제공해주었다. 그는 靑島大學에서 강의를 하며 해변생활을 통해 인생에 대한 무한한 사색을 하였고 문학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확립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1935년을 전후로 당시 문단에서는 일본의 침략이 노골화됨에 따라 抗日기운이 고조되고 있었다. 沈從文은 당시 출판되던 문학서적과 유행하는 잡지를 볼 때 대다수 청년 작가의 문장이 모두 엇비슷해서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의견이 부족하고 단지 유행과 시대만을 추구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신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sup>22)</sup>

항일 전쟁 기간 沈從文은 昆明의 西南聯合大學에서 문학습작을 강의하였지만, 당시의 모든 작가와 마찬가지로 沈從文도 전시의 선전문예에 종사하도록 강요받았다.

항전 승리 후 沈從文은 北京大學과 輔仁大學에 복귀하였으며, <天津大公報>와 <益世報> 두 文學副刊을 편집하였다. 이 시기에 沈從文은 새로운 창작은 거의 시도하지 않았으며 舊作을 改作하는 경우가 많았다.

48년 초 내전과 사회의 혼란은 沈從文에게 실망을 안겨 주었다. 그는 內戰

---

19) 1928년 3월 10일 徐志摩와 胡適 등 구미 유학생들이 상해에서 창립한 문학단체. 沈從文은 이 단체와 연관을 맺고 창작활동을 했기 때문에 중공정권의 수립 후 자본주의 작가로 규정되었음.

20) 김영구, 김시준 共著, 《中國現代文學論》, 서울: 방송통신대학출판부, 1995, p.110

21) 凌宇, 《從邊城走向世界》, 三聯書店, 1985, p.80

22) 凌宇, 《從邊城走向世界》, 三聯書店, 1985, p.81

에 반대하는 평론을 발표하여 이 內戰이 민족자살 비극이라고 보고 ‘사랑’으로 서로 거리를 좁히고 내전을 그치자고 주장했다.

### 3. 試鍊期(1949~1988)

沈從文的 작가로서의 생애는 엄밀히 말하면 1949년에 이르러 종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49년 이후 그는 창작활동을 중단하고 古宮博物館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古代服飾 연구에 몰입했다. 1949년 沈從文은 자본주의 작가로 규정되어 여러번 사상개조를 당하였다. 沈從文은 실제로 左.右派 어디에도 속한 바가 없었으나 新月派와 연관을 맺어 왔다는 이유 였다. 그는 이처럼 여러 차례의 시련을 겪으면서 시대의 급 변화에 적응하지 못함을 깨닫고 일체의 창작 활동을 중단하게 되었다.

1950년 인민 혁명대학 정치연구원에서 정치 교육을 받았으며, 1951년<大公報>에 <我的學習>이란 문장을 발표하며 과거 자신의 창작이 과오였음을 인정하게 된다. 정치학원에서 10개월을 보낸 후 그는 고궁 박물관에 복귀하여 전통문물이나 민속예술 정리에 전념하였다. 군대 시절 한 사령관의 개인비서를 하면서 그 저택에 소장되어 있던 많은 고전문헌과 명화, 청동기, 도자기, 석각, 고서 등을 접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었고, 관심도 많았기에 고궁박물관에서의 연구는 창작활동의 암흑 시기였지만 그 개인에게 있어서는 휴식기라고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중국 문물에 대한 관심은 문물연구자로서의 열정을 일으켜 1959년<金花紙> 등 중국 고대 방직물에 관한 저명한 저서가 출판되기에 이른다. 또한 공예 미술에 관한 연구논문집인 <龍鳳藝術>, <唐宋銅鏡>을 발간하는 등 중국 고대 물질문명에 관한 가치 있는 연구에 전념하였다.

1973년 沈從文은 전국 각지에서 새로이 발굴된 문물을 검토하고 연구할 책임을 맡아 그 자신의 창조력을 발휘하는 기회를 찾게 된다. 1978년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원에서 근무했으며, 고대복식연구실을 건립하기도 했다. 그는 中央 제4회 全國文代會(1979)에서 작가로서의 신분과 참여 기회를 회복했지만 문학창작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공백이 있었다.

1985년 중국작가협회 제 4차 회원대표회의에서 28명의 저명한 작가들과 함

계 중국작가협회 고문으로 추대되었고, 그 후 1988년 5월 10일 88세의 일기로 北京에서 그의 파란만장한 삶은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 第3章 <변성>의 창작배경과 동기

#### 第1節 社會的 背景

중국 역사에 있어서 5.4운동을 현대의 시발점으로 본다면 1920년대 중국은 그 전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서의 시작과 발전의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920년을 전후 하여 군벌의角逐은 사회를 극도의 혼란으로 몰아넣어졌고, 정치적으로는 國共의 合作과 分裂, 帝國主義와 國民 革命軍의 대립과 타협, 日本의 무력간섭과 국권회복이라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으며,<sup>23)</sup> 이러한 사건으로 인하여 중국의 사회 성격을 변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1926년 蔣介石이 국민 혁명당 총사령에 임명되고 그 해 7월부터 북벌이 단행되었다. 제1차 國共合作 상태에서 진행된 北伐은 과속지세로 성취되어 갔다. 그러던 중 거의 완성 단계에서 국민당 좌파는 武漢政府를 세웠고, 이에 맞서 蔣介石도 南京에 國民政府를 수립했다. 그리고 4.12사건<sup>24)</sup>을 계기로 南京政府와 武漢政府의 대립 국면은 본격화된다. 이 사건 이후 남경정부는 ‘清黨’이라는 명목으로 공산당원과 반항하는 노동자들을 체포해 처형하는 공격을 시작했고, 결국 공산당은 수세에 몰리게 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1931년 9월 일본의 관동군이 奉天 교외에서 만주철도를 폭발시키고 그것을 중국군의 소행이라 주장하며 중국을 공격함으로써 9.18사변 곧 滿洲事變이 일어났다. 일본군은 東北 3省的의 21개 도시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이듬해 2월, 하얼빈을 점령하는 것으로 동북 3성을 완전히 장악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일본군이 동북 3성을 공격하자 國民黨 정부는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공산당 섬멸을 눈앞에 두고 있는 때에 전군을 동북 지방에 투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sup>25)</sup> 국민당 정부가 이렇게 곤경에 처해 있을

23) 佐伯有一, 野村浩一外 著, 吳相勳 譯, 《中國現代史》, 한길사, 서울, 1980, p321 참고

24) 4.12사건이란, 1927년 4월12일 南京에서 제국주의 외국자본에 맞서 노동자 봉기를 일컫는 것으로서, 蔣介石은 제국주의 국가와 정치적인 거래를 개시함과 더불어 깡패집단을 이용하여 이 봉기를 진압하였다.

25) 金時俊 著, 《中國現代文學史》, 지식산업사, p183

때 공산당은 1931년 11월 7일 江西省 瑞金에서 중화소비에트공화국 임시정부 수립을 발표했다. 공산당 정부의 수립이 공포되자 蔣介石은 공산당 진압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였으나, 일본이 국민 정부군의 복상을 견제하는 조치로 1932년 1월 상해를 공격했고, 이에 더욱 곤경에 처한 국민당 정부는 일본과의 停戰에 급급하여 성급한 정책을 펼치고 말았다.

이처럼 沈從文이 작품을 창작할 당시에는 대외적으로는 일본의 침략이 노골화 되었던 시기였으며, 국내적으로는 국민당과 공산당 간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던 시기였다. 아울러 서구의 대규모 자본의 유입으로 중국민족 경제는 거의 파산지경에 이르는 등 국가적 위기가 첨예화된 시기였다. 그러나 沈從文은 苗族의 혈통을 지닌 작가로서 湘西에서 성장하면서 이러한 현실을 직접적으로 체험했으며, 이것의 역사에 대해서도 잘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문명화되지 않은 湘西의 文化와 意識을 긍정적인 것으로 여겼다. 그래서 그는 작품을 쓸 때 湘西 지역의 인물이나 사건을 소재로 하고, 자연을 배경으로 하여 중국의 암울한 현실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자연과 인간의 아름다움만을 짙은 향토적 색채로 표현하였다.

## 第2節 當時文壇의 경향

중국 문단은 정치 형세의 변화에 따라 革命的·反革命的·自由主義的 태도를 지닌 작가들에 의해 分枝와 對立이 발생했다. 각 분파 안에서도 관점이 완전히 일치했다고는 볼 수 없으며, 때로는 구체적 견해의 차이로 모순이 생기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문단의 論爭은 필연적으로 복잡하게 뒤엉키는 양상으로 변모해 갔다.<sup>26)</sup>

沈從文이 중국 문단에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전개한 1920년대 말부터 1930년대 중반까지는 크고 작은 논쟁이 끊이지 않았던 시기였으며, 5.4 新文學 시기 이후의 문단은 러시아 10월 革命的의 영향을 받은 李大釗, 陳獨秀 등의 급진 마르크스주의로 접근하는 경향과 胡適, 陳源, 徐志摩 등의 서구 지향적 순수문학 추구 경향으로 나뉘어 졌다. 그러다가 1928년 상해에서 혁명문학의

26) 吳立昌, 《沈從文-建築人生神廟》, 復旦大學出版社, 1991, p 74-76

논쟁이 일어났다. 혁명문학을 주장한 것은 蔣光慈, 孟超 등이 조직한 太陽社와 제3기 創造社였다. 이들은 ‘無產階級革命文學’을 문학의 지표로 들고 나왔다. 또한 태양사의 대표작가인 蔣光慈는 그들의 창간호에 <現在中國文學與社會生活>이라는 논문을 게재하였다. 그는 혁명과 시대와 작가를 동일 선상에 놓았으며 이 시대는 혁명의 시대이고 혁명의 시대에는 혁명의 시대를 표현하고 창조해야만 참된 혁명기의 작가라고 주장했다. 즉, 혁명문학은 역사 발전의 당연한 결과로서 나온 프롤레타리아 계급 문학이라고 보았다.<sup>27)</sup>

인성론 문제를 둘러싼 新月派와의 논쟁에 이어, 다시 또 ‘문예논쟁’이라 칭하는 論戰이 발생했다. 이 ‘문예자유논쟁’의 초점은 문학과 정치의 관계로 문학의 진실성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열띤 攻防이 펼쳐졌다.<sup>28)</sup> 1930년대의 중국 문단은 封建的·半植民地的 사회의 급진적 변혁과 깊게 밀착되어 있었고, 문학이 정치적 현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또 그 사회적 기능이 강조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음을 고찰해볼 때 이러한 논쟁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이 論戰을 일으킨 사람은 胡秋原과 蘇汶으로, 각각 ‘自由人’과 ‘第三種人’을 표방하면서 左聯과 민족주의 文學 양측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1936년 무렵 일본의 침략이 노골화되자 중국민은 抗日을 위한 전국민의 단합을 갈구하게 되었다. 이에 좌익 문단도 공산당의 영향 하에 좌우익 연합을 추구하게 되었고 좌련의 활동은 거의 정지되었다. 그리고 1937년 중·일 전면전이 전개되자 전국은 항일에 이해를 같이 하는 모든 계급과 계층이 연합하여 항전 태세를 갖추어갔다.

1938년 文藝界는 武漢에서 ‘中華全國文藝界抗敵協會’를 설립했다. 전국 각 계층의 作家를 망라한 이 협회는 長沙, 成都, 昆明, 桂林, 香港, 上海등지에 分會를 두고, <抗戰文藝> 회보를 발행했다. ‘文協’의 결성으로 인해 抗戰文藝 운동이 구체적으로 전개되었는데, 특히 報告文學 · 戰時수필, 街頭단막극 등이 비교적 성행했다.

이 시기 沈從文 역시 獨立作家群의 일원으로서 문학과 정치와의 結緣을 반대하며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작품의 창작을 주장했다. 京派의 일원이었던

27) “革命文學, 不要誰的主張, 更不是誰的獨斷, 由歷史的內在的發展一連絡, 他應當而且必然地是無產階級文學.” 李初梨, <怎樣的建設革命文學> 《文學運動史料選》第2卷, 1979, p.39.

28) 黃修己, 《中國現代文學發展史》, 中國青年出版社, 1997, p.243참고.

沈從文은 1930년대 좌익과 우익의 문학이 서로 자신들의 이론들을 배경으로 대립하고 있었던 투쟁의 시기에 좌익과 우익 문학의 한 가운데 서서 그들 사이의 중간적 역할을 담당하며 중국 신문학의 내용과 형식에 있어 풍부함을 더해 주었다. 따라서 이들 京派의 문학적 성격은 좌익과 우익이라는 한정된 계급성이나 정치성에 얽매이지 않는, 예술자체의 기능을 중시하는 순수 문학적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京派 작가들은 일정한 문학적 이상을 지닌 작가들의 모임이 아니라 단지 여러 성향을 지닌 작가들이었으며, 中國文藝界에서도 하나의 유파라기보다는 일종의 단순한 문학 조류 내지 문학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그 이전 시기(1918~1927)<sup>29)</sup>와는 달리 소설 제재가 외세의 침략에서 고난을 받으며 각성하는 지식인상, 핍박과 고통 속에서 스스로를 찾 고자 하는 농민, 노동자 등의 생활상, 국민혁명 도상에 발생했던 국공의 분열로 방황하는 지식 청년들의 고민과 무산계급 혁명을 고취하는 내용 등 제재가 다양화되고, 또한 서양의 창작기법을 중국에 토착화시켜 중국식 현대 소설의 체계와 표현기법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30년대는 시대적으로는 혼란한 시대였으나, 문학 이론의 자유로운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시, 소설, 희곡의 각 분야에 걸쳐 수많은 작품이 나왔다. 특히 양적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진일보한 작품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다. 이처럼 어지러운 정세와 문학적 견해의 차이로 수많은 논쟁이 일어나던 시기에 문학을 통해 人性을 회복하고자 했던 沈從文은 마침내 <邊城>을 창작하게 되었던 것이다.

### 第3節 <邊城>창작의 동기

1930년대 初, 國共의 치열한 攻防 속에서 1931년 左翼路線을 걸던 胡也頻이 처형되고, 1933년에는 丁玲이 체포되었다. 비록 이들과 정치적인 입장이 같지 않았던 沈從文이었지만 이 두 사람과 동향으로서 인간적인 관계가 매우 돈독했기에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백방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29) 현대 문학 개척기를 가리키며 이 시기의 현대 소설의 제재는 주로 封建主義 사회의 모순과 새로운 민주주의 사회로 전이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지식인들의 고민이 주조를 이루었음.



이러한 그의 노력은 결국 胡也頻의 처형과 丁玲의 공산주의자로의 전향이라는 결과로 돌아왔다. 이에 沈從文은 심적으로 고독한 상황하에서 더욱 현실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확립하는데 노력하게 된다. 그는 고독한 생활에서의 사색을 즐기며, 자신만의 문학 세계를 창조하고자 했다.

沈從文의 최고가치는 ‘人間性’이다. 그렇기 때문에 沈從文은 全人的 인간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소우주’를 창조하고 싶었던 것 같다. 그 세계는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反人間的이지 않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이 분열되거나 소외되지 않은 세계이다. 沈從文이 <邊城>을 창작하게 된 계기는 그의 이와 같은 고독한 심경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표현하고자 했던 이유라고 보여진다.

그는 그의 작품 속에 그가 과거에 접촉하고 경험했던 湘西 사람들의 정직함과 성실함 그리고 소박한 품성과 인정미 넘치는 평범한 생활에서 진정 추구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沈從文은 바로 평범한 사람들의 眞率한 哀樂의 감정을 통해 자연스럽고 인성에 어긋나지 않는 인생형식을 제시하고자 했으며, 인간성이 왜곡되지 않은 이들의 인간관계를 통해 그가 추구하는 세계를 형상화하고자 했던 것이다. 또한 沈從文은 ‘과거 향촌세계의 인생형식’을 모델로 한 자신의 문학창작이 단순히 작자 개인의 관념적인 遊戲가 아니며 중국 사회 변화에 관심을 가진 독자들에게 “이 민족의 과거의 위대한 점과 현재의 타락한 점을 認識”<sup>30)</sup>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자신의 작품과 독자와의 接近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당시 文壇에서 文學과 社會와의 關係를 놓고 左.右의 理念論爭이 한창이었던 상황에 비춰볼 때 沈從文의 문학사상이 결코 독자와 대중을 度外視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현재와 과거의 對照를 통해 작가가 窮極的으로 독자에게 말하고 싶은 主題를 잘 끌어내 보여주고 있다. 또 沈從文은 <邊城>의 創作動機로서 중요한 要因을 극히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것이라고 述懷하기도 한다.

沈從文은 당시 勢力 있는 친척의 청혼도 거절하고 우연히 알게 된 ‘얼굴색이 하얀 여자’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을 갈구 했으나 이 맹목적인 사랑은

---

30) <邊城>, 《沈從文文集》 제6권, 廣州:花城出版社, 1992 p.70

돈을 사기 당하고 마음의 상처만을 남기고 끝나 버렸다. 그리고 이 실연과 사기사건에서 받게 된 마음의 상처는 오랫동안 치유되지 못했다. 결국 沈從文은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이 과거에 경험한 고통의 몸부림을 지워버릴 수 없었기에 이 상처의 고통을 종이에 옮기려고 했던 것을 아닐까? 이와 같이 沈從文은 1930년대 初, 國共 內戰이라는 정치적 상황과 左.右 文藝論爭이 한창이던 文壇상황 아래서 近代文明에 오염되지 않고 人間性이 消失되지 않은 세상을 추구하고자 했던 것은 아닌지, 또 그 속에 자신의 굴욕적인 과거의 愛情 경험을 投影시켜 그와는 정반대인 순수한 사랑을 써서 카타르시스를 꾀하고자 소설〈邊城〉을 집필하기 시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第4章 <邊城>의 인물형상 및 주요소재의 특징분석

### 第1節 주요 인물형상

小説에 등장하는 人物을 통해 우리는 작가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 할 수 있고, 인물들의 行動과 생각은 바로 작가가 반영하고자 하는 主題意識을 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독자의 感情移入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邊城>과 같은 沈從文的 鄉土小説에서는 湘西 지역의 人情과 風俗에 대한 묘사와 성실하고 건강한 人性을 가진 인물들을 자주 접할 수 있다 이는 어린 시절 湘西에서 자란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유년시절부터 군대 시절까지 그가 접한 것은 奧地의 아름다운 자연과 순수한 시골 사람들이었다. 이러한 환경은 沈從文이 文學觀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따뜻한 시선으로 건강하게 표현하고, 인물들의 對話와 行動描寫를 통해 작가의 의도를 충분히 반영하는 媒介體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작중 인물들은 모두 善하고 작가가 이상형으로 삼는 人性美를 지니고 있다.<sup>31)</sup> 이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사회의 일원으로 계층간의 갈등도 겪고 있지 않으며, 和諧와 協肋를 이루며 살아간다. 이렇듯 작가는 原始的인 자연 환경과 인간의 조화를 통해 인간의 순수하고 건강한 人性美를 추구하고자 했던 것이다. 인물들의 성격을 분석하기에 앞서 인물 상호 간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작품의 줄거리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湖南省 湘西의 변경 茶峒 마을 에 70세의 뱃사공과 15살의 손녀 翠翠는 서로 의지하며 세상과의 갈등과 욕심 없이 평화롭게 살아간다. 翠翠의 부모는 그들의 사랑이 이루어 질 수 없음을 택하고 만다. 사건은 翠翠가 13살이 되던 해 단오절에 성안으로 龍船 경기를 구경하러 갔다가 管水碼頭團의 책임자이자 船主 順順의 둘째 아들 傩送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된다. 이때부터 翠翠와 傩送은 서로를 마음속에 품게 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順順의 큰 아들 天保 또한 그녀를 좋아하게 된다. 뱃사공은 天保에게 馬路와 車路라는 두 가지 방식을 제안하게 되고, 그는 車路를

31) 黃修己 著, 高大中國語文研究會 譯, 《中國現代文學發展史》, 中國青年出版社, 1997, p.456

통해 구혼을 한다. 그러나 翠翠는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아 이에 두 형제는 馬路를 통해 경쟁을 펼치게 된다. 그러나 天保는 노래 부르는 것으로 동생 雛送에게 이길 수 없음을 알고, 翠翠를 포기한 채 배를 타고 떠나는데 도중 물에 빠져 죽게된다. 順順은 이것을 뱃사공이 혼인에 대해 정확한 대답을 해주지 않아 天保가 죽게 된 것이라고 오해하게 되고, 둘째 아들 雛送을 다른 집 처녀와 혼인시키려 한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고민하던 뱃사공은 폭풍우가 치던 밤에 세상을 떠나고, 둘째 아들 雛送마저 아버지의 혼인 결정에 따를 수 없어 집을 나가버린다. 후에 翠翠는 홀로 남아 雛送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이상의 줄거리에서 알 수 있듯이 <邊城>은 翠翠와 雛送, 天保의 순수한 사랑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沈從文은 <邊城·題記>에서 자신의 ‘創作目的’을 ‘내가 접촉했던 세계의 측면에서 그들의 愛憎과 苦樂을 그려내는 것’<sup>32)</sup>이라고 밝힌 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의 目的을 민중의 共同體的인 삶을 조명하는데 두고 있다. 작품에 나타난 남녀간의 애정문제는 변방 마을의 共同體的인 삶을 보다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한 하나의 사건일 뿐이다.

작품에서는 翠翠, 天保, 雛送, 뱃사공, 順順, 翠翠의 母親, 梁馬兵 등의 인물들이 등장한다. 이 중 사건에 직접적으로 介入하는 翠翠, 天保, 雛送, 뱃사공, 順順을 주요 인물로 지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 1. 翠翠

翠翠는 <邊城>의 여주인공으로 나룻배를 관리하는 뱃사공의 외손녀이다 작가는 舊世代의 대표인 뱃사공에 대응하는 新世代의 인물로 翠翠를 형상화하고자 했다. 때문에 翠翠는 作品 속에서 自然과 함께 순수하고 生命力 넘치는 生動感있는 積極的인 인물로 묘사 되고 있다.

沈從文은 翠翠의 성격에 대해 <邊城>을 쓸 때 翠翠의 총명하고 온화한 품성은 곧 실 가계 소녀의 인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는 沈從文이 고향을 방문 했을 때 17년전 군대 동료인 雛右가 시내의 실

---

32) “就我所接觸的世界一面，來敘述他們的愛憎與哀樂” <邊城>，《沈從文文集》 제6권, p.70

가게 딸을 흠모하여 실을 산다는 핑계로 몇 차례나 그 집을 찾아갔던 일을 회상하며 말한 것이다. 그는 군대 동료 儺右가 흠모하는 실 가게 딸에게서 인상을 얻어 翠翠의 모습을 형상화하게 됐다. 다음의 대목은 翠翠의 성격이 생동감 있게 묘사 되어 있는 부분이다.

翠翠는 바람과 햇볕 속에 자랐기 때문에 피부가 새까맣게 그을었고, 눈에 닿는 것이 푸른 산과 푸른 물이어서, 한 쌍의 눈동자는 수정처럼 맑았다. 자연이 그녀를 키우고 교육한 것이다. 뽀뽀이가 천진하고 활발했으며, 어떤 때는 마치 한 마리 작은 동물과 같았다. 또 사람은 어찌나 온순한 지 산속의 고라니 같고 한번도 잔인한 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수심에 잠기거나 화를 낸 적도 없었다.

(翠翠在风日里长养着，把皮肤变得黑黑的，触目为青山绿水，一对眸子清明如水晶。自然既长养她且教育她，为人天真活泼，处处俨然如一只小兽物。人又那么乖，如山头黄麂一样，从不想到残忍事情，从不发愁，从不动气。)33)

이처럼 翠翠는 검게 그을린 피부를 가진 健康한 生命體이며, 수정처럼 맑은 눈동자를 가진 순수한 소녀이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의식 저편 깊숙이 자리하고 있어 우울한 내면을 지니고도 있지만 평소의 생활은 우울한 분위기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활발하며, 자연과 호흡하며 성장해온 그녀 특유의 생명력이 생생하게 표현되는 인물이다. 血肉이라고는 오로지 뱃사공 한 사람과 기르고 있는 누렁이 한 마리가 가족의 전부이지만, 그녀의 삶은 고독함보다는 15세 산골소녀에게서 느낄 수 있는 산골소녀로서의 典型的인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녀는 현실사회의 人爲的 制約에 의해 부모를 잃고 오로지 할아버지와 함께 자연 속에서 맑고 건강한 소녀로 성장한다. 푸른 산과 물, 바람과 해 모든 자연이 그녀의 스승이었고 놀잇감 이었다. 또 누군가 그녀를 해치려는 의도를 보이면 본능적으로 도망가려 하기도 했다. 이런 그녀의 성격은 善良하고 淳朴한 할아버지의 성품에서 影響을 받기도 하지만, 순수한 自然性에 基礎를

33) <邊城>, 《沈從文文集》 제6권, p.75

하고 있다.

그녀는 천진하고 활발한 성격을 가지고 할아버지의 일을 대신할 정도로 건강한 生命力을 보이고 있다.

누군가 건너편 언덕에서 손을 내저으며 강을 건너게 해 달라고 소리쳐 부르면 翠翠는 할아버지를 깨우지 않고 곧바로 배에 뛰어 올라 매우 민첩하게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행인을 건네주기도 하였다.

(人在隔岸招手喊过渡，翠翠不让祖父起身，就跳下船去，很敏捷的替祖父把路人渡过溪，一切皆溜刷在行，从不误事。)<sup>34)</sup>

15살의 나이로 배에 행인을 싣고 강을 건넌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지만, 翠翠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와 단 둘이 살면서 노년의 할아버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생활 속에서 익히게 된 것이다. 이젠 그녀가 이 일을 물려받아도 될 만큼 모든 것이 능숙할 정도이다. 翠翠가 나룻배 부리는 일은 단순히 할아버지를 도와주려는 것을 넘어 이제는 자신의 일로 여기고 있었다. 작가는 淳朴하며 健康한 인물을 등장시켜 순수한 自然本來의 삶을 보여 주려 했던 것이다.<sup>35)</sup>

이처럼 건강하고 활기찬 翠翠도 마음 깊숙히 우울한 일면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그녀의 悲劇的인 出生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할아버지가 어머니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翠翠는 어머니의 죽음이 비극인지 알지 못했다. 그래서 翠翠는 어머니란 존재에 대한 그리움과 갈망으로 인해 우울해지는 것이다. 다음은 그녀의 우울한 內面을 잘 나타내주는 예이다.

翠翠는 달빛 아래서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할아버지 곁에 기대어 그 불쌍한 엄마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물었다. 간혹 한숨을 내쉬는데 무언가 목직한 것이 내리 누르는 듯 했다. 좀 멀리 떨어져

34) <邊城>, 《沈從文集》 제6권, p.75~76

35) 皇甫正河, <沈從文 小說 研究 -물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67 참고

버리려고 생각해서 이런 한숨을 내쉬지만 오히려 그런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다.

(翠翠抱膝坐在月光下，傍着祖父身边，问了许多关于那个可怜母亲的故事。间或吁一口气，似乎心中压上了些分量沉重的东西，想挪移得远一点，才吁着这种气，可是却无从把那东西挪开。)36)

翠翠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도 없기에 母性愛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묵직한 것이 억누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도 그것이 무엇인지, 왜 그런 것인지 알지 못한다. 잊어보려 하지만 좀처럼 잊어버릴 수 없는 母性에 대한 本能的인 渴望인 것이다. 이처럼 翠翠는 아직 자신의 감정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다. 단지 어렴풋한 감정의 변화를 느끼며 혼란스러워한다. 작가는 翠翠의 이런 혼란스런 상태를 통해 人間本然의 감정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다.37) 이러한 인간 본연의 다듬어지지 않은 감정을 통해 翠翠의 自然性은 더욱 부각 된다.

또한 翠翠는 천진난만하고 활발한 少女에서 점차 成熟한 女人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는 신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신부의 꽃가마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들꽃을 머리에 매고 혼자 신부 분장을 하거나, 幻想과 妄想에 사로 잡히는 등 점차 여성스러운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다. 翠翠의 少女의 인 모습은 나룻배에 탄 부유한 소녀의 은팔찌를 부러워하는 장면에서 잘 나타난다.

그 母女는 표정으로 봐서는 분명히 부잣집 아내와 딸이었다. 翠翠는 그 여자애를 쳐다보다가 여자 아이의 팔목 위에 놓여 있는 파배기 모양의 장식을 단 은팔찌를 보게 되었다. 하얀 빛이 반짝이고 있는 은팔찌가 내심으로 못내 부러웠다.

(那母女显然是财主人家的妻女，从神气上就可看出的。翠翠注视那女孩，发现了女孩子手上还戴着有一副麻花纹的银手镯，闪着白白的亮光，心中有点儿羡慕。)38)

36) <邊城>, 《沈從文文集》 제6권, p.132

37) 方準浩, <邊城에 나타난 鄉土의 浪漫性 研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65 참고

38) <邊城>, 《沈從文文集》 제6권, p.105~106

자연을 친구삼아 성장해온 그녀였지만, 그녀 역시 또래 여자아이와 같은 少女的 취향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부잣집 아이의 은팔찌를 부러워하는 모습은 부모 없이 할아버지의 품에서 자란 翠翠의 가난하고 외로운 환경을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기도 한다. 나이가 들면서 그 나이의 정상적인 여자애가 그렇듯이 신체적인 변화와 더불어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일정한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는 翠翠가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성숙해지는 과정 중에 하나인 사랑이라는 자연스러운 감정에 눈을 뜨기 시작하는 모습에서 알 수 있다.

翠翠는 날마다 눈에 띄게 성장해갔다. 무의식중에 할아버지가 어떤 이야기를 꺼내기만 해도 그녀의 얼굴이 붉어지는 때가 있다. 시간이 그녀를 성장시키는 것을 보면 그 속엔 마치 그녀를 하루속히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려는 어떤 속셈이 감춰져 있는 것만 같았다. 翠翠는 요즘 들어 부쩍 얼굴가득 분을 바른 새색시를 보는 일이나 새색시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일, 들꽃으로 머리를 장식 하는 일 등을 좋아했으며 또 누군가가 부르는 노랫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것도 무척 좋아했다. 이제 翠翠는 茶峒 사람의 노랫소리라면 아무리 멀리서 들어도 당장 알아들을 수 있었다. 翠翠는 또 어떤 때는 고독해 하면서 바위 위에 앉아 하늘의 구름이나 별들을 한참동안 바라보기도 했다. 그럴 때 간혹 할아버지가 “翠翠야 무슨 생각하니?”하고 묻기라도 하면 이내 부끄러운 듯 한 표정을 지으면서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곤 했다. “아무 생각도 안해요.” 그러나 이렇게 대답하면서도 그녀는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물어본다. ‘翠翠야, 무슨 생각하니?’, ‘내가 생각하는 건 아주 먼 나라의 일들이야. 하지만 그게 도대체 무엇인지는 나도 몰라!’ 그녀는 확실히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지만 자신조차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또렷이 알아낼 수는 없었다. 翠翠는 이제 다 자라서 신체상으로 만도 나이를 스스로 알려주는 한가지 ‘기이한 일’이 매달 이 소녀에게도 찾아왔다. 그럴수록 그녀는 더욱 혼자서 생각에 잠기는 일이 많아졌다.

(翠翠一天比一天大了，无意中提到什么时会红脸了。时间在成长她，似乎正催促她，使她在另外一件事情上负点儿责。她欢喜看扑粉满脸的新嫁娘，欢喜说到关于新嫁娘的故事，欢喜把野花戴到上去，还



欢喜听人唱歌。茶峒人的歌声，缠绵处她已领略得出。她有时仿佛孤独了一点，爱坐在岩石上去，向天空一起云一颗星凝眸。祖父若问：“翠翠，想什么？”她便带着点儿害羞情绪，轻轻的说：“在看水鸭子打架！”照当地习惯意思就是“翠翠不想什么”。但在心里却同时又自问：“翠翠，你实在想什么？”同是自己也在心里答着：“我想的很远，很多。可是我不知想些什么。”她的确在想，又的确连自己也不知在想些什么。这女孩子身体既发育得很完全，在本身因年龄自然而来的一件“奇事”，到月就来，也使他多了些思索，多了些梦。)<sup>39)</sup>

이처럼 翠翠는 身體的으로나 內面的으로 成熟해지면서 많은 것들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꿈꾸게 되고, 그러면서 그녀는 서서히 사랑이라는 감정에 눈을 뜨게 된다. 翠翠가 이러한 감정의 변화를 보이게 된 것은 2년 전 단오절에 雛送을 오해했다가 후에 雛送이 順順네 둘째 아들인 것을 알고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게 된다. 그 이후 翠翠는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을 느끼게 된다.

翠翠가 할아버지에게 품었던 원망의 감정은 강을 건너 집에 도착한 후 술에 취해 쓰러져 누워있는 또 다른 노인을 보고 이해가 되어 곧 풀려 버렸다. 그러나 다른 한가지일 -자기만 알고 할아버지는 모르는- 자신만의 일로 翠翠는 그날 밤 아무 말도 않고 생각에 잠겨 있었다.

(翠翠對祖父一點埋怨，等到把船過了溪，一到了家中，看明白了醉倒另一個老人後，就完事了。但另一件事，屬於自己不關祖父的，却使翠翠沈默了一個夜晚)<sup>40)</sup>

翠翠에게는 雛送과의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이 할아버지는 모르는 자기만의 秘密이 된 것이다. 翠翠는 이런 짧은 만남을 통해 막 異性에 눈을 뜨고 첫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sup>41)</sup> 이렇듯 翠翠는 異性이라는 감정의 변화를 느끼게 됨에 따라 婚姻 행렬에 관심을 갖게 되고, 想像의 세계로 접어드는 등 愛

39) 《沈從文文集》 제6권, p.7

40) <邊城>, 《沈從文文集》 제6권, p.92

41) 안승웅, <변방의 어느 마을(邊城) 主題研究>,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28 재인용

情을 渴望하는 행동을 보이고, 사랑에 눈뜬 翠翠의 모습은 여인으로 성숙되어 가는 과정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물질문명에 얼룩진 사람들이 주장하는 성숙한 인간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작가가 생각하는 성숙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翠翠는 幻想과 夢想에 잠겨 있는 때가 많았다. 이는 白鷄關에 늙은 호랑이가 있는지<sup>42)</sup>, 백 폭이나 되는 흰 천을 이어서 돛을 만든 큰 배를 타고 洞庭湖를 여행한다든지<sup>43)</sup>, 그녀 자신도 알지 못하는 곳을 여행하는 일이 많았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이처럼 翠翠는 다른 세계에 대한 憧憬을 그녀의 상상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Jeffrey C. Kinkley는 그녀의 이러한 幻想에 대해 “이는 시골사람들의 內面生活의 한 側面이라 할 수 있다. 시골사람은 자기의 감정을 의식할 수 없으며, 외부사회의 행위를 분류할 수 없고 그저 이 일들의 본질을 분석하여 새로운 의의를 부여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하였다.<sup>44)</sup> 이렇듯 翠翠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未知의 세계에 대한 渴望을 자기만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며 지내왔던 것이다.

翠翠가 生과 死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서 삶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로 할아버지의 죽음이다.

강을 가로 질러 묶어 놓았던 밧줄도 물에 자며 버렸고, 절벽 아래에 묶어 놓았던 나룻배도 이미 보이지 않았다. 翠翠는 집 앞의 절벽이 무너지지 않은 걸 보고는, 그때는 미처 나룻배가 없어졌을 거란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얼마쯤 있다가 위 아래로 찾아도 나룻배를 찾을 수가 없었으며, 무심결에 돌아보니 집 뒤에 있던 흰 탐이 이미 보이지 않았다. …… 급히 집으로 돌아가 침대 옆에서 할아버지를 오래도록 흔들었으나 할아버지는 여전히 아무 소리가 없었다. 뱃사공은 뇌우가 그칠 무렵 이미 죽었던 것이다.

(过渡的那一条横溪牵定的缆绳, 也被水淹没了, 泊在崖下的渡船, 已不见了。翠翠看看屋前悬崖并不崩塌, 故当时还不注意渡船的失去。

42) “白鷄關眞出老虎嗎?” <邊城>, 《沈從文文集》 第6卷, p.105

43) “一百幅白布拼成的日片東西, 先在這樣大船上過洞庭湖”, <邊城>, 《沈從文文集》 第6卷, p.105

44) Jeffrey C. Kinkley, <沈從文論> p.168, 김성동, <沈從文 後期 鄉土小說의 現實意識>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220 재인용

但再过一阵，她上下搜索不到这东西，无意中回头一看，屋后白塔已不见了。一惊非同小可，赶忙向屋后跑去，才知道白塔业已坍倒，大堆砖石极凌乱的摊在那儿。翠翠吓慌得不知所措，只锐声叫她的祖父。祖父不起身，也不答应，就赶回家里去，到得祖父床边摇了祖父许久，祖父还不作声。原来这个老年人在雷雨将息时已死去了。)45)

이처럼 할아버지는 천둥과 폭풍우가 치는 밤에 茶峒의 상징인 흰 탑의 붕괴와 함께 50년간 지켜오던 나룻배에 자신의 영혼을 실어 떠나 버리고 만다. 翠翠의 유일한 혈육인 할아버지의 죽음은 그녀에게 있어 큰 슬픔과 절망이었다. 그러나 翠翠는 자신의 어머니처럼 생명을 내 던져버리기 보다는 슬픔과 절망을 인내하고 이를 극복해 나가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할아버지의 죽음, 사랑의 좌절, 離送의 不在 등 역경에 처해 있지만 타인에게 의존하기 보다는 스스로 극복해보려는 인간 본연의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에 대항하여 주체적으로 인생을 개척해가고자 하는 인간의 意志가 담겨있다.

이같이 翠翠는 자연에 인성을 둔 淳朴하고 生命力 있는 인물이다. 작가는 翠翠의 다듬어지지 않은 감정을 통해 人間本然의 人性을 생동감 있게 형상화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순박한 人性도 물려받았으며 새로운 세계를 渴望하는 신세대다운 모습도 가지고 있으며. 난관에 부딪혔을 때도 모든 것은 하늘의 뜻이라 여기고 順應하는 할아버지와 달리 翠翠는 좌절하지 않고 希望을 가지고 이를 克服해 나간다.

## 2. 天保와 離送

天保와 離送은 船主 順順의 아들로 이 소설을 이끌어 가는 또 하나의 軸이다. 이들은 오염되지 않은 人性의 소유자들로 湘西의 미래를 이끌어갈 靑年들이지만, 이 두 형제의 성격은 특이하게도 서로의 행동이나 말투를 통해 對照되면서 더욱 浮刻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 두 사람은 湘西 靑년의 대표자로서 부모님의 교육적인 영향으로 어느 면에서나 뛰어난 인재로 성장하게 된다.

---

45) <邊城>, 《沈從文文集》 제6권, p.156~157

지금 그의 큰 아들은 벌써 열여덟 살, 작은 아들은 열여섯 살이 되었다. 이 두 소년은 작은 수소처럼 단단하게 자라서 배 타기나 수영을 아주 잘 할 줄 알 뿐만 아니라 아무리 먼 길을 걸어도 피곤한 줄 모를 만큼 체력들이 좋았다. 마을의 다른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들도 무엇 하나 못하는 것이 없었고, 그것도 아주 뛰어나게 잘했다. 큰 아들은 성품이 그의 아버지를 닮아 호방하고 활달하며 사소한 격식에 구애됨이 없었고, 작은 아들은 하양 얼굴의 그의 엄마를 닮아 말수가 적었으며 눈썹이 아주 잘생겨서 한번 보기만 하면 곧 그가 총명하고 감정도 풍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到如今, 他的儿子大的已十八岁, 小的已十六岁。两个年青人皆结实如小公牛, 能驾船, 能泅水, 能走长路。凡从小乡城里出身的年青人所能作的事, 他们无一不作, 作去无一不精。年纪较长的, 如他们爸爸一样, 豪放豁达, 不拘常套小节。年幼的则气质近于那个白脸黑发的母亲, 不爱说话, 眼眉却秀拔出群, 一望即知其为人聪明而又富于感情。)46)

이들 역시 自然과 함께 성장해왔기에 작가는 그들을 수소에 비유하며 활기차고 生命力 넘치는 인물로 형상화 했다. 이들은 집안이 부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教育 하에 근면하고 온화하며,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젊은이로 성장해 마을 사람들의 尊敬을 받았다. 이렇듯 이들 둘은 茶峒 사람 특유의 건강한 人性美를 가지고 있지만 愛情觀에서는 대조된 모습을 보인다. 天保는 그의 아버지를 닮아 성격이 豪放하고 豁達하며 사소한 격식에 구애됨이 없었다.47) 뱃사공에게 자신의 감정을 말하는 모습에서 天保의 外向的인 성격을 알 수 있다.

“翠翠는 정말 예뻐요. 하지만 그녀가 茶峒 사람의 노래를 듣는 일에만 익숙하고 茶峒 여자가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을 바로 해 낼 수 없을까 봐 걱정입니다. 저도 제가 노래를 부를 때 알아들을

46) <邊城> p.13

47) “如他們爸爸一樣, 豪放豁達, 不拘常套小節”, <邊城>, 《沈從文文集》 第6卷, p.83

수 있는 연인을 바라지만 그렇다고 집안일을 돌볼 며느리가 없어서는 안 되겠죠”

(翠翠太娇了, 我担心她只宜于听点茶峒人的歌声, 不能作茶峒女子做媳妇的一切正经事。我要个能听我唱歌的情人, 却更不能缺少个照料家务的媳妇。)48)

그는 뱃사공에게 翠翠를 좋아하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고백하면서 애정에 대한 그의 의견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 天保는 外向的으로 感情이 우선 되는 사랑보다 여성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는 理性的인 사랑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즉 현실적이고 능력 있는 여자를 원하고 있고, 그가 집안의 장남으로 집안을 유지해 나가야 할 의무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天保의 현실적인 성격으로 順順은 그가 자기와 꼭 닮았다고 느끼는 것이다.

雛送은 天保와 마찬가지로 노련한 호랑이처럼 단단하고 또 溫和하며 다른 사람들과도 친하였으며, 교만하거나 나태하지 않았다.49) 또 그는 집안이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더운 여름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일을 하러 떠날 만큼 근면한 성품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는 형과 달리 내성적이며 감성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또 天保보다 용모가 더 수려하여 사람들은 ‘岳雲’이라는 다른 이름을 붙여 칭송하기도 했다.

雛送은 내성적인 성격으로 翠翠에 대한 애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단지 그녀가 아름답고 어른이 된 것 같다고 칭찬할 뿐 이었다.

“아저씨, 翠翠도 이제 다 컸군요. 정말 예쁘게 자랐습니다.”

(伯伯, 你翠翠象个大人了, 长得很好看!)50)

그의 이러한 표현은 翠翠에 대한 迂廻的인 관심의 표현이다. 그는 세심하고 정감 있는 행동으로 翠翠에게 다가간다. 강가에서 혼자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翠翠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려 하지만 翠翠가 오해를 해서 사람을 시켜 집

48) <邊城>, 《沈從文文集》 제6권, p.102

49) “兩個人皆結實如老虎, 却又合氣親人, 不驕惰, 不浮華, 不倚勢凌人”, <邊城>, 《沈從文文集》 第6卷, p.83

50) <邊城>, 《沈從文文集》 제6권, p.110

에 돌려보낸다. 또 그녀를 단오절 행사에 참석하게 하기 위해 나룻배를 돌볼 사람을 보내고, 그녀를 위해 경기에 최선을 다해 1등을 한다. 儼送의 이러한 모습은 翠翠의 마음에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한다.

이와 달리 外向的이면서도 現實的인 성격의 天保는 다른 방법으로 求婚을 한다. 天保는 篋사공이 제시한 두 가지 求婚 방법 중 ‘車路’를 선택하는데, 먼저, 篋사공이 제시한 두 가지 방법을 알아보자.

“차는 차가 가는 길이 있고, 말은 말이 가는 길이 있으니 각각 방법이 다르네, 큰 도령이 가려는 길이 車路라면, 당연히 큰 도령의 부친께서 주가 되어서 중매쟁이를 시켜 나에게 정식으로 알려야 하네, 만약 馬路로 가려한다면, 당연히 큰 도령 자신이 주가 되어 강 맞은편에 있는 높은 언덕 위로 올라가 翠翠를 위해 삼년 육개월 동안 노래를 불러야 할 걸세”

(车是车路, 马是马路, 各有走法。大老走的是车路, 应当由大老爹爹作主, 请了媒人来正正经同我说。走的是马路, 应当自己作主, 站在渡口对溪高崖上, 为翠翠唱三年六个月的歌。)51)

위의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茶峒의 젊은이들이 결혼대상에게 구혼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 장기에 사용되는 돌을 이용한 篋사공의 언급은 이를 比喻的으로 說明하고 있는 것이다. 구혼 방식에는 ‘車路’와 ‘馬路’가 있는데 ‘車路’는 중매인을 내세운 격식을 차린 방법이고, ‘馬路’는 애정 당사자들이 자유로이 노래로써 구혼하는 방법이다. ‘車路’는 집안이나 부모의 의견을 중시하는 봉건적인 방법이고, ‘馬路’는 당사자의 감정을 중시하는 자유연애를 말한다.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天保도 결혼에 있어서는 翠翠의 의사보다 부모가 허락하면 된다는 封建的인 思考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는 梁馬兵이라는 중매인을 내세워 구혼를 하게 되는데, 翠翠는 이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篋사공 역시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한다. 天保는 자신의 구혼에 대한 대답을 얻지 못하는 것을 篋사공의 탓으로 돌린다.

“어떤 결과도 얻어 내지 못했어, 그 노인이 입에 자두를 물고 있

51) <邊城>, 《沈從文文集》 제6권, p.116

는지 똑똑히 대답을 하지 않더군.”

(得不到什么结果。老的口上含李子，说不明白。)52)

儼送은 형이 ‘車路’를 통해 구혼하였다가 답을 얻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翠翠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린 뒤 ‘馬路’를 통한 경쟁을 제안한다. 아무에게도 자신들의 정체를 알리지 않고 둘이서 번갈아가며 노래를 부르다가 누구든지 먼저 대답을 얻게 되는 사람이 翠翠와 혼인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그는 이렇게 해야만 모든 일이 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天保는 儼送의 제안을 시큰둥하게 받아들이는데, 이는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에게 손녀를 시집보내 무슨 이득이냐는 天保의 현실적인 성격 때문이기도 한다. 이처럼 봉건적 사고방식으로 인해 天保는 翠翠의 마음을 얻는 儼送과의 경쟁에서 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같이 天保는 外向的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난관에 부딪혔을 때는 消極的인 態度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翠翠와의 결혼이 성사되지 않으면 배를 타고 멀리 다른 데로 떠나 버리면 그만이라는 소극적인 생각과 있음에서 알 수 있다. 또 동생이 翠翠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도 사랑을 쟁취하겠다는 굳건한 의지도 없으며, 儼送이 구혼하는 것을 방관한다. 그는 ‘馬路’를 통한 경쟁에서 자신은 동생을 이길 수 없다는 생각에 시도조차 해보지 않고 포기해 버린다.

이러한 天保의 성격은 ‘일이 잘 될 것 같으면 상대방에게 간이라도 내어 주려 하지만, 일이 안 될 것 같으면 친삼촌에게라도 하나는 하나고 둘은 둘이다’53)라는 식의 茶峒 사람 특유의 투박한 성격에서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은 채 배를 타고 떠난다. 이같이 天保는 자신에게 닥친 난관을 해결해 보려는 조그마한 의지도 없이 그것을 피하려는 소극적이고 나약한 성격을 드러낸다. 이런 나약함은 결국 그의 죽음을 불러오는데 작가는 ‘하늘이 보살피는 사람은 살다가 간혹 잘못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天保의 이름에서부터 그의 죽음을 암시했다.54)

52) <邊城>, 《沈從文文集》 제6권, p.127

53) “弄得好，掏出心子來給人也很慷慨作去，弄不好，親舅舅也必一是一二是二” <邊城>, 《沈從文文集》 第6卷, p.128

54) “天保佑的在人事上或不免有齟齬處”, <邊城>, 《沈從文文集》 第6卷, p.84

그러나 儼送은 ‘車路’가 안 되면 ‘馬路’로 가 보려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그는 翠翠의 마음을 얻기 위해 밤새 그녀를 향해 노래를 부르고, 결국 그녀의 마음을 얻게 된다. 이처럼 儼送은 翠翠를 얻겠다는 積極的인 意志로 난관을 헤쳐 나가려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翠翠에 대한 깊은 애정과 물질이나 외부적 조건보다는 자신의 순수한 사랑을 더 중요시 하는 儼送의 애정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가 王團總의 딸과의 결혼을 권유할 때에도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표명한다.

“아버지, 이일을 아버지를 위한 일로 여기신다면, 집안에 방앗간도 많아지고 사람도 많아져서 즐거우실 테니 아버지 생각대로 승낙하세요, 만약 저를 위한 것이라면 전 좀더 잘 생각해야 하니 며칠 지나서 다시 말씀 드리겠어요. 전 아직까지 저게 방앗간을 얻어야 하는지, 나룻배를 얻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운명 속에는 어찌든 나룻배를 부리도록만 허락되어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爸爸, 你以為這事為你, 家中多座碾坊多個人, 你可以快活, 你就答應了。若果為的是我, 我要好好去想一下, 過些日子再說它吧。我還不知道我應當得座碾坊, 還是應當得一只渡船: 我命里或只許我撐個渡船!)<sup>55)</sup>

儼送은 자기 앞에 나타난 방앗간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儼送은 방앗간이라는 물질에 현혹되지 않고, 자신의 애정을 중요시 여겨 나룻배를 택하려 하는 것은 순수한 愛情을 지향한다는 의지로 알 수 있다. 그러나 儼送은 이 난관을 해결하지 못하고 기약 없는 길을 떠난다.

이상에서 살펴본바 天保와 儼送은 湘西의 미래를 이끌어 갈 건강하고 生命力이 넘치는 청년들이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성실하고 人情美 넘치는 사람으로 성장했다.

이 처럼 茶峒의 젊은이들은 獨立의 能力을 갖추고 자신의 의지에 의해 人性을 설계해 나가는 인물들이다. 이들은 모든 것은 하늘의 뜻이라 여기고 순응하는 舊世代와 달리 자신의 人生을 開拓해 나가며, 이들은 難關에 부딪혔을

55) <邊城>, 《沈從文文集》 제6권, p.150



때에도 결코 비판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이를 극복해 나가려는 의지를 가진 인물들이다. 天保처럼 다소 消極的으로 對處하는 인물이 있긴 하지만, 그 역시 運命이라 여기고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이런 점에서 사회에 대한 積極的인 鬭爭은 아니더라도 이러한 인물들을 통해 사회의 混亂을 克服하고, 미래에 대한 希望을 품고 있다는 것에서 작가의 의지를 알 수 있다. 이처럼 沈從文은 <邊城>을 통해 現代文明에 의해 오염되고 파괴된 人性을 回復하고, 건강하고 순수한 인간의 人性을 찾고자 했던 것이다.

### 3. 뱃사공

뱃사공은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하나로, 50년 동안이나 나루터를 지키며 사람들을 건네주는 일을 한 노년의 뱃사공이다. 또 그는 翠翠의 할아버지로서 그녀가 좋은 짝을 만나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녀의 애정문제에 介入하는 媒介體 역할을 하고, 이로 인해 인물들 간의 오해와 갈등이 발생하게 되고, 곧 소멸한다.

<邊城>에서 사공은 과거의 湘西 사람들이 지녔던 ‘人性美의 代表 人物’로서 運命에 順應하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언제나 勤勉하고 善良하며 분수에 맞는 사상과 品性을 지니고 있는 건강한 생명력의 소유자로서 舊世代의 대표 인물로 형상화 되었다. 이러한 사공의 모습은 아래의 예문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나루터는 공공 소유라서 건너는 사람이 요금을 낼 필요는 없지만, 그냥 가기가 마음이 편치 않아 얼마간의 돈을 갑판 위에 던지고 가는 이들도 더러 있다. 그럴 때면 사공은 반드시 돈을 하나하나 주워서 손바닥에 한줌 가득 모아들고는 무슨 시비나 하려는 듯이 엄숙한 표정으로 “누가 이 돈을 쓰겠수? 난 두 서말이나 있고 돈 도 칠백전이나 있으니 내쉴건 충분하오!”하고 말한다. ……사공도 마음이 내키진 않았지만 일단은 이 돈을 받아서는 다른 사람에게 시켜 茶峒에 가서 찻잎과 연초를 사오게 한다. 茶峒에서 생산된 상급의 연초를 한 다발 한다발 엮어 자기의 허리춤에 찬 연초에 은근히 관심을 표시할 때면, 사공은 작은 연초다발 하나를 그의 보따리 속에 끼워 넣으면서 말한다. “여보슈, 이것

좀 피워보지 않겠수? 이게 아무 묘하게 좋수다. 보기엔 뭐가 될성  
 싶지 않아도 손바닥 만한 잎이 안주 일품이유, 길가는 사람들에겐  
 안성맞춤 이라우.” 그리고 연초와 함께 사온 찻잎은 6월쯤 큰 항  
 아리 속에 넣어두었다가 끓는 물을 부어서 차를 만들어 행인들에  
 게 그때그때 갈증을 풀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sup>56)</sup>

(渡頭爲公家所有，故過渡人不必出錢。有人心中不安，抓了一把錢擲  
 到船板上時，管渡船的必爲一一拾起，依然塞到那人手心里去，儼  
 然吵嘴時的認真神氣：“我有了口量，三斗米，七百錢，夠了。誰要  
 這個！……管船人却情不過，也爲了心安起見，便把這些錢托人到茶  
 峒去買茶葉和草烟，將茶峒出產的上等草烟，一扎一扎挂在自己腰帶  
 邊，過渡的誰需要這東西必慷慨奉贈。有時從神氣上估計那遠路人對  
 於身邊草烟引起了相當的注意時，便把一小束草烟扎到那人包袱上  
 去，一面說，“不吸這個嗎，這好的，這妙的，味道蠻好，送人也合  
 式！”茶葉則在六月里放进大缸里去，用開水泡好，給過路人解渴。)

이처럼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공의 정신은 자신의 직업에 대한 愛着과 自  
 矜心으로 연결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사람들이 강물을 건너게 해주는 일  
 과, 여기 저기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주고 싶어 하는 마  
 음은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높여주는 역할도 한다. 이런 직업정신은  
 결국 계층과 계급에 관계없이 그저 사람과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  
 마냥 묘사되고 있는 부분에서 작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마  
 음 그대로를 投射하고 있다.

뱃사공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舊世代를 代表 인물로 과거 湘西 사람  
 들이 지녔던 ‘人性美’의 대표적 인물로 형상화되어 있고, 언제나 勤勉, 誠實하  
 며 자애로운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런 뱃사공의 성격은 茶峒사람에게 普遍  
 的으로 內在되어 있는 것이기에 뱃사공과 茶峒 사람을 비교하여 살펴 볼 수  
 있다. 뱃사공은 명절 때 마을에 잔치가 벌어져도 자신의 나룻배를 지킬 만큼  
 責任感이 강하고 뱃사공일이 천직인 것처럼 불만 없이 묵묵히 수행해 나가는

56) <邊城>, p.6

소박하고 평범한 인물이다. 다음의 예는 뱃사공의 勤勉性을 잘 나타내주는 부분이다.

말은 일에 있어서 조금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 할아버지는 배를 건너는 사람들이 모두 빨리 집으로 돌아가 저녁을 먹어야 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쉴 새 없이 강을 건넜다. 행인이 한사람이라도 있으면 언덕에서 기다리지 않게 하려고 바로바로 그를 건네 주었다.

(在職務上毫不兒戲的老船夫，因為明白過渡人皆是趕回城中吃晚飯的人，來一個就渡一個，不便要人站在那岸邊呆等，故不上岸來。)57)

뱃사공은 항상 자리를 지키며 행인이 한 사람만 있어도 기다리게 하지 않고 바로 건네준다. 이는 자신의 일을 충실히 수행하려는 뱃사공의 責任感에서 비롯된 것이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의 마음이기도 하다.

또 뱃사공은 강을 건너는 사람들이 뱃삿을 지불하고자 하면 단호히 거절하고, 돈을 지불한 사람이 있으면 끝까지 쫓아가서 돈을 돌려주는 등 剛直하고, 솔직한 성격의 소유자이다. 그의 이러한 성격은 단오절날에 翠翠가 처음의 약속과 달리 혼자서 구경 가지 않으려 하자 翠翠를 타이르는 모습에서 잘 나타난다.

“翠翠야, 너 왜 그러느냐? 한번 약속을 해 놓고 나서 그렇게 쉽게 마음을 바꾸다니. 전혀 茶峒사람 같지 않구나! 우린 하나라고 말했으면 끝까지 하나인게지 중간에 가서 둘도 되고 셋도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翠翠，你這是爲什麼？說定了的又翻悔，同茶峒人平素品德不相稱。我們應當說一是一，不許三心二意。)58)

뱃사공은 茶峒 사람의 강직함을 자부심 담긴 어투로 말하고 있다. 이런 품성은 茶峒 사람들이 아내를 맞이하는 과정에서도 볼 수 있다. 한 여자를 놓

57) <邊城>, 《沈從文文集》 제6권, p.131

58) <邊城>, 《沈從文文集》 제6권, p.99

고 서로 아내로 맞아들이려고 할 경우 관습대로 칼을 들고 혈투를 벌일망정, 도시의 비겁한 남자들이 강인한 적을 만났을 때 연출하는 가소로운 행위인 ‘애인을 바치는 짓’은 절대로 하지 않을 만큼 강직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이러한 강직함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茶峒 사람 모두가 지니고 있다.

벧사공은 길을 나선 사람들을 위해 煙草나 茶, 常備藥을 준비해 둘 만큼 人情美가 넘치는 사람이다. 강을 건네준 사람들이 준 돈을 마지못해 받는다면 그들을 위해 좋은 煙草를 사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에게나 기꺼이 주고, 茶를 만들어 행인들의 갈증을 풀어주며, 常備藥을 마련해 두었다가 안색이 좋지 않은 행인이 있으면 건네주는 등 남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사람이다. 그의 人情美가 잘 나타나 있는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벧사공은 또 늘 더위를 먹어 배가 아프거나 천연두나 종기를 치료하는 약초를 준비하여 평소 집안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놓아둔다. 나룻배를 타고 가는 행인의 안색이 좋지 않으면 서둘러 약을 가져와 자신의 처방대로 사용하게끔 선의의 강요를 하고는, 그 사람에게 많은 민간 구급처방의 내원에 대하여 설명해준다. 이러한 민간처방은 전부 성 안의 軍醫와 무당에게서 배워 온 것이다. (老船夫且照例準備了些發痧肚痛治庖瘡瘍子的草根木皮, 把這些若擱在家中當眼處, 一見過渡人神氣不對, 就忙愻愻的把藥取來, 善意的勒迫這過路人使用他的藥房, 且告人這許多救急丹方的來源. 這些丹方自然全是他從城中軍醫同巫師學來的.)<sup>59)</sup>

그는 자신의 일에 성실할 뿐만 아니라 여정에 나선 사람들의安危까지 염두에 두고 常備藥을 준비할 만큼 세심한 배려를 지닌 사람이다. 이같이 그는 經濟的으로 풍족하지 못하지만 늘 남을 배려하는 훈훈한 人情美를 지닌 인물이다.

단오절에 손녀가 벧놀이 구경을 가고 싶어하여 친구에게 배를 맡기고 가지만 자기 대신 나루터를 지키는 친구가 안쓰러워 다시 되돌아오는 장면은 人情美 넘치는 벧사공의 성품을 나타내기에 충분하고, 이러한 소박하고 人情美

59) <邊城>, 《沈從文文集》 제6권, p.125

넘치는 모습은 茶峒사람들에게도 공통된 것이다.<sup>60)</sup> 이러한 모습은 뱃사공과 고깃간 주인이 실랑이하는 장면에서도 잘 나타난다.

(할아버지가) 고깃간으로 가서 고기를 사려하면 고깃간 주인은 돈을 받지 않으려 하는데, 고깃간 주인이 돈을 받지 않으면 할아버지는 다른 곳으로 가서 고기를 살망정 결코 그런 편의를 생각하지 않는다. 고깃간 주인이 ‘아저씨 뭘 그렇게 하나하나 따지고 그러슈! 아저씨보고 받을 갈라는 것도 아닌데’하고 말한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피 값이기에 다른 일과는 비교할 수 없다. 고깃간 주인이 돈을 안 받으려하면 할아버지는 혼자서 계산을 마치고, 크고 긴 돈 통속에 던지듯이 돈을 넣고는 고기를 움켜쥐고 급히 나와 버린다.

(走到卖肉案桌边去，他想“买肉”人家却不愿接钱，屠户若不接钱，他却宁可到另外一家去，决不想沾那点便宜。那屠户说，“爷爷，你为人那么硬算什么？又不是要你去做犁口耕田！”但不行，他以为这是血钱，不比别的事情，你不收钱他会把钱预先算好，猛的把钱掷到大而长的钱筒里去，攥了肉就走去的)<sup>61)</sup>

고기 값을 제대로 쳐 주려는 뱃사공과 뱃사공을 배려하여 더 좋은 고기를 더 많이 주려는 주인과의 실랑이하는 모습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미소 짓게 할 만큼 人情美 넘치는 장면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작가는 주요 인물들은 물론 사소한 인물들, 심지어 술집의 여인들조차도 肯定的으로 描寫하고 있다

변방은 풍속이 순박해서 기녀들조차 그렇게 정이 깊고 따뜻하다. ……이런 사람들은 의리를 중시하고 이익을 바법계 여기며 또한 자신의 언약을 지킨다. 그래서 설령 기녀라 하더라도 수치를 느끼는 도시 사람들보다 더 믿을 수 있었다.

(由于边地的风俗淳朴，便是作妓女，也永远那么浑厚，……这些人既重义轻利，又能守信自约，即便是娼妓，也常常较之讲道德知羞耻的

60) <邊城>, 《沈從文文集》 제6권, p.104

61) <邊城>, 《沈從文文集》 제6권, p.104

城市中人还更可信任。)62)

작가는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妓女들까지도 순박하고 人情이 넘치고, 義理를 중요시하며 스스로 약속한 것은 지킬 수 있어 도시의 남자들보다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즉 작가는 자신이 추구하는 人性美를 소설의 모든 인물들에게 반영시켜 놓았다.

이처럼 뱃사공은 시골사람의 순박한 人性美를 가지면서도 중국의 封建 사상과 달리 開放的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개방성은 茶峒 전래의 구혼방식에서 기인한 것으로, 그들은 ‘馬路’든 ‘車路’든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게 자유를 준다. 家父長的인 구조가 뿌리 깊이 박혀 있는 다른 지역과 달리 茶峒의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애정에 관해 강요하지 않는다. 뱃사공은 중매쟁이가 와서 天保와의 혼담을 이야기 할 때도 그건 翠翠의 일이라며 翠翠에게 결정권을 준다.

“네가 만약 馬路를 좋아한다면 그는 너를 위해 햇빛 아래서 열정적인 노래를 부르고, 달빛 아래서 부드러운 노래를 부르리라 믿는다. 마치 두견새처럼 피를 토하고 목구멍이 무를 때까지 부를꺼야!”

(你若歡喜走馬路，我想信人家會爲你在日頭下唱熱情的家，在月光下唱溫柔歌，一直唱到吐血喉嚨爛)63)

뱃사공은 자신의 딸이 이미 이러한 방식으로 애정을 선택하여 悲劇的인 결과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손녀인 翠翠에게도 그러한 茶峒 전래의 구애방식을 허용하는 開放性을 가지고 있다.64) 이런 개방성은 뱃사공과 茶峒 사람들의 의식과 행위 속에 보편적으로 내재해 있는 개방성이라고 볼 수 있다.

자신의 일에 忠實하며 勤勉하고 善良하게 살아가던 뱃사공도 나름대로의 소박한 慾心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방앗간에 대한 욕심이었다.

62) <邊城>, 《沈從文文集》 제6권, p.81~82

63) <邊城>, 《沈從文文集》 제6권, p.123

64) 金成重, <沈從文 後期 鄉土小說의 現實意識>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96, p.89 재인용

뱃사공은 본래부터 물방앗간에 각별한 흥미를 가지고 있었다. ……강변에서 방앗간을 관리하는 일이 나룻배 한척을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변화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으리라는 건 한번 보기만 하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나룻배를 끄는 사람이 방앗간에 욕심을 낸다면 그건 아예 불가능한 망상일 뿐이다.

(老船夫對於水碾子原來就極有興味的。……在河邊管理一個碾坊比管理一只渡船多變化有趣味，情形一看也就明白了。但一個撐渡船的若想有座碾坊，那間直是不可能的妄想)<sup>65)</sup>

茶峒에서 방앗간은 富의 象徴으로 뱃사공 뿐 아니라 대부분 茶峒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다. 이는 왕씨가 딸을 시집보낼 때 방앗간을 딸려 보내려 하는데 그 상대인 難送을 부러워하는 부분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작가는 뱃사공의 이러한 욕심을 現代 物質文明의 잣대로 보지 않고 그의 건강한 人性美에 의거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뱃사공이 방앗간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富 때문이 아니라 나룻배에 비해 훨씬 더 다양한 즐거움을 느낄 거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뱃사공은 이것이 분수에 맞지 않는 있을 수 없는 妄想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그저 부러워만 할 뿐 어떠한 질투나 시샘을 하지 않는다. 이처럼 그는 자신의 분수에 만족하고 헛된 욕심을 부리지 않는 健康한 人性의 소유자로 묘사 되고 있다.

또한 뱃사공은 모든 일은 하늘의 安排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運命論의 인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인간의 한계나 능력 밖의 일에 대해서는 포기하기를 요구 받으며 살아온 舊世代의 特徵이다. 뱃사공 역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보겠다는 의지 없이 自然과 調음을 이루며 맑은 바에 충실히 살아갈 뿐이다.

본래대로라면 마땅히 쉬어야 하나, 하늘이 쉬는 것을 허락지 않아 그는 아마도 이런 생활을 떠날 수 없는 것 같았다. 그는 여태껏 자기가 하는 일이 스스로에게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본 적이 없

65) <邊城>, 《沈從文文集》 제6권, p.114

다. 그저 묵묵히 충실하게 그 곳에서 살아 갈뿐.

(本来应当休息了, 但天不许他休息, 他仿佛便不能够同这一分生活离开。他从不思索自己的职务对于本人的意义, 只是静静的很忠实的在那里活下去。)<sup>66)</sup>

위의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뱃사공은 자신의 일에 대해 어떠한 의미도 부여하지 않고, 그것이 자신의 運命이라 믿으며 묵묵히 수행한다. 또한 여기서는 뱃사공의 죽음에 대한 견해가 잘 드러나 있다.

그는 70세의 노인으로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작가는 하늘이 허락하지 않아 뱃사공이 아직도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의 運命論的인 모습을 부각시켰다. 이는 딸의 죽음을 접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일들은 뱃사공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다. 오직 “하늘”에 순응하여 책임질 따름이었다. 翠翠의 할아버지는 입으로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오히려 이런 불행한 안배에 대해 완전히 동의할 수 없었다. 자신에게 할당된 몫은 말하자면 정말로 공평하지 않았던 것이다!

(這些事從老船夫說來誰也無罪, 只應‘天’去負責。翠翠的祖父口中不怨天, 心却不能完全同意這種不幸的按排。攤派到本身的一分, 說來實在不公平)<sup>67)</sup>

이처럼 뱃사공은 딸의 悲劇的인 죽음을 접하고도 그 어떤 원망이나 울분을 토하지 않았다. 그저 하늘의 뜻이라 여기며 받아들일 뿐이다. 그러나 이처럼 운명론적인 성격을 지닌 뱃사공도 마음속으로는 하늘을 怨望하는 矛盾된 심리를 드러내기도 하는데, 그것은 그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불행한 일들이 불공평하다고 여기면서도 그런 일에 대해 어떠한 행동도 취할 수 없는 자신에 대해 無氣力함을 느끼게 되는 것에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뱃사공은 건강한 人性美를 가진 湘西 대표 舊世

66) <邊城>, 《沈從文文集》 제6권, p.74

67) <邊城>, 《沈從文文集》 제6권, p.101



代의 典型이다. 그는 자신의 맡은 일을 충실히 하며 다른 사람을 배려 할 줄 아는 넘치는 人情美의 소유자 이다. 또한 하늘의 이치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運命論的인 성격을 지니지만 애정관에 있어서는 開放性을 보이기도 한다. 이 같이 작가는 뱃사공을 통해 그가 추구하고자 하는 原始的 人性의 전형을 생동적으로 묘사하였다.

#### 4. 順順

沈從文은 <邊城, 題記>에서 ‘農民과 兵士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따뜻한 사랑을 품고 있다.’<sup>68)</sup>라고 밝혔듯이 작품 곳곳에서 작가의 이러한 감정이 엿보인다. 성공한 군 출신의 順順은 辛亥革命 때 육군 49標 십장을 지냈던 군인이었다가 퇴역하여 배를 사서 그것을 남에게 빌려주어 몇 년 후에는 8척의 배를 가진 船主가 되었으며, 賢明한 아내와 자랑스런 두 아들을 둔 인물이다. 그는 성격이 豪宕하고 人情이 많아 남의 어려움을 보면 그대로 지나치지 못한다. 비교적 富有하고 安樂한 環境에 살면서도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잘 헤아려 무엇이든 도움을 주려고 하는 마음 따뜻한 사람으로써, 자신이 가진 財產으로 더 많은 재산을 불리기 위해 인정사정없이 사람들을 이용하는 일반적인 재력가와는 정반대의 人格的으로 成熟한 사람으로 묘사 되고 있다.

그의 사업은 비록 순조로웠지만 사람이 호방해서 친구 사귀기를 좋아했고 돈 씹씹이에 구매 받지 않은 정열적인 성격이어서 돈을 악착같이 모으기 보다는 여기저기 기꺼이 쓰는 편이었다. 특히 그는 남이 곤궁에 처하여 위급한 일 때에는 누구보다 앞서 기꺼이 도와주는 사람이었으므로 그 마을의 화를 잘내는 기름장수와는 대조적이었다. 그는 비록 부유하고 안락한 형편에 있으면서도 집 떠난 사람의 고통과 실의에 빠진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해 주었다. 이 때문에 배가 잘못되어 파산한 집이나 동네를 지나가는 낙오병, 유학하는 지식인 등이 이곳에 와서 그의 이름을 듣고 도움을 청하여 오면 그는 거절하는 법이 없었다.

(事業虽十分顺手, 却因欢喜交朋结友, 慷慨而又能济人之急, 便不能同贩油商人一样大大发作起来. 自己既在粮子里混过日子, 明白出门

68) ‘对于农人与兵士, 怀了不可言说的温情’, <邊城, 題記>, 《沈從文文集》 第6卷, p.70

人的甘苦，理解失意人的心情，故凡因船只失事破产的船家，过路的退伍兵士，游学文墨人，凡到了这个地方闻名求助的，莫不尽力帮助。)69)

이처럼 順順은 재물을 축적하는 데 애쓰지 않고 어려운 사람을 기꺼이 도와주는 따뜻한 人情美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비록 그가 經濟的 富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작가는 順順을 肯定的으로 묘사하고 있고, 이는 물질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順順이 茶峒 사람들이 지니는 성실하고 근면한 人性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강 위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는 남을 위해 쓸 줄 아는 人情美 넘치는 인물이다. 이러한 모습은 뱃사공이 죽자 최선을 다해 장례를 치러주고 혼자 남은 翠翠를 거두려는 장면에서도 따뜻한 人情美를 느낄 수 있다. 그의 이러한 성품은 자녀들에 대한 教育觀에서도 잘 나타난다.

배가 하류로 떠날 때면 順順은 대개의 경우 이들 형제를 자기 배에 태워서 뱃사람들과 고락을 함께하게 했는데, 노를 저을 때도 가장 무거운 노를 골라 그들에게 주었고, 밧줄을 당길 때도 앞쪽의 두 줄을 그들이 끌어당기게 하였다. 또한 먹는 것은 말린 생선과 고추, 신 냄새가 나는 채소였고, 잠은 딱딱한 갑판 위에서 잤다. 상류로 가서 육로로 다닐 때는 산동의 상인들을 따라서 秀山, 龍潭, 酉陽지방 등을 다니면서 장사를 했다. 춥던지 덥던지 눈이 오던지 비가 오던지 항상 짚신을 신고 땅을 힘껏 내딛으며 빠르게 걸어갔다.

(向下行船时，多隨了自己的船只充伙计，甘苦与人相共。荡桨时选最重的一把，背纤时拉头纤二纤，吃的是干鱼，辣子，臭酸菜，睡的是硬帮帮的舱板。向上行从旱路走去，则跟了川东客货，过秀山、龙潭，酉阳作生意，不论寒暑雨雪，必穿了草鞋按站赶路。)70)

그는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人性을 기를 수 있도록 배가 출항할 때 함께 태워 보내고, 뱃사람들과 苦樂을 함께하며 용기있고, 의지있는 사람으로 만들려

69) <邊城>, 《沈從文文集》 제6권, p.82

70) <邊城>, 《沈從文文集》 제6권, p.83

했던 것이다. 그 결과 두 아들도 誠實하면서 溫和하며, 자신의 힘과 부를 믿고 교만하거나 남을 경멸하지 않았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이들 삼부자에 대해 존경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또 順順은 애정에 관해선 당사자들에게 自由를 주고, 어른들이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할 만큼 開放的인 사고를 지닌 인물이다. 아래의 문장을 통해 그의 사고방식을 볼 수 있다.

“이제우리의 입이란 단지 술이나 마시면 되는 것이지, 더 이상 아이들 대신 노래를 부르려고 생각해선 안 되는 거라구요. ……나는 우리가 단지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만 얘기하면 되지 젊은 사람들 앞날에 대해서까지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我们的口只应当喝酒了, 莫再只想替儿女唱歌! ……我以为我们只应当谈点自己分上的事情, 不适宜于想那些年青人的门路了.)<sup>71)</sup>

이는 自由戀愛가 전래되어 올 만큼 개방적인 茶峒에서 생활한 그 역시 그러한 선택을 했기에 형성된 사상인 것이다. 이처럼 茶峒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었다.

위에서 살펴본바 順順에게 湘西의 원시적 인성을 부여하면서도 현대 物質文明下의 商人이라는 二重性을 부여하고 있다.<sup>72)</sup> 이러한 이중성은 그의 結婚觀에서 확실히 드러나는데, 먼저 그는 스스로 약간의 재산이 있는 젊은 寡婦와 결혼함으로써 결혼에 대한 現實的인 모습을 보여주며, 또 雛送에게 王團總의 ‘방앗간’과 뱃사공의 ‘나룻배’라는 조건이 놓여 있을때 ‘방앗간’을 선택하도록 설득하는 모습에서도 잘 알 수 있다.

그는 비록 ‘방앗간’에 끌리기는 하지만 자식에게 강요는 하지 않는다. 애정에 관한 한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順順은 商人階層답게 현실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한편으론 무엇 하나 자랑할게 없는 翠翠를 큰 아들의 상대로 결정해 중매인을 보낼

71) <邊城>, 《沈從文文集》 제6권, p.154

72) 方準浩, <邊城에 나타난 鄉土的 浪漫性 研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59 참고

만큼 순수한 人性을 가지고 있는 사람 으로서 沈從文은 順順을 통해 湘西 사람들의 人情미를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다.

“아저씨,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이니 그만 들시다. 여기서 大興場 사람이 보내온 좋은 소주가 있으니, 좀 가져다 마세요”  
(伯伯, 一切是天, 算了吧。我这里有 大興場人送来的好烧酒, 你拿一点去喝罢。)73)

위에 대목에서 볼 수 있듯이 뱃사공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는 아량을 배풀고 있으며, 어찌되었든 큰 아들의 죽음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찾아온 뱃사공의 불안함을 없애주려 하였다.

그리고, 뱃사공이 세상을 떠났을 때 최선을 다해 외로운 가정을 위해 극진하게 도움을 배풀고 후하게 장례를 지내주는 따뜻한 모습의 順順은 人本主義를 실천하는 주체적인 인물로서 손색이 없다. 남겨진 翠翠를 거두기 위해 처신하는 모습도 매우 인간적이며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는 장면이다.

할아버지가 죽은 지 스무 여드레가 지난 후의 어느날 船主 順順이 사람을 보내어 梁馬兵에게 잠시 성내로 들어와 줄 것을 청하였다. 용건인 즉 順順이 翠翠를 집안에 받아들여 둘째 아들의 아내로 삼겠다는 자신의 생각을 양마병과 의논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順順의 얘기로는 둘째가 아직 장주에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정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고로 일단 翠翠를 하가로 이사해서 살게 하다가 둘째가 돌아오고 나면 다시 그와 상의해서 결정하겠다는 취지인 것이다.

(过了四七, 船总 顺顺派人来请 马兵进城去, 商量把 翠翠接到他家中去, 作为二老的媳妇。但二老人既在辰州, 先就莫提这件事, 且搬过河街去住, 等二老回来时再看二老意思。马兵以为这件事得问 翠翠。回来时, 把 顺顺的意思向 翠翠说过后, 又为 翠翠出主张, 以为名分既不定妥, 到一个生人家里去不好, 还是不如在 碧溪咀等, 等到二老驾船回来时, 再看二老意思。)74)

73) <邊城>, p.61

74) <邊城>, p.82

順順이란 인물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湘西 鄉村 세계의 일반적인 湘西人처럼 誠實하고 勤勉한 모습을 잃지 않은 사람이며, 또한 성공한 商業階層 사람이지만 재물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만큼 人情이 넘치고, 사리가 분명하고 정직하며 호방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茶峒 사람 특유의 건강한 인성을 지닌 사람이다. 또 商人답게 현실적인 利得을 추구하는 이중성을 가지고도 있으나 애정에 대해선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할 만큼 개방적이다. 작가는 현대 物質文明에 오염된 사람들이 건강한 人性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順順의 형상을 통해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다.

## 第2節 주요소재의 특징

### 1. <邊城>속의 전통문화

우선 <邊城>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첫 번째로는, 이 작품에서 알 수 있는 중국의 조혼풍습이다. 중국 여성은 전통적으로 일찍 결혼했으며, 결혼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가족주의 시스템이 결혼을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인은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지하고 있는 시기에 결혼했다. 소녀가 17살이 되면 인생의 전환점, 즉 결혼을 준비하게 된다. 일반적인 전통 중국의 결혼과정에 따르면 신부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도 본인이 직접 상담에 관여할 수 없었다. 신부는 장래의 남편을 자신이 결정하는 입장에 있지도 않았다. 신부는 곧 가풍에 익숙해지도록 요구받는다. 만약 게으르거나 지나치게 발랄하면 일종의 재난으로 생각했다. 신부집안의 사회, 경제적 위치도 부모가 신부를 결정하는데 기준이 되었다. 또 양 집안 서로 엄청난 혼수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 예의였다. 상대 집안에 걸맞는 혼수를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집안간의 경제적 수준이 맞지 않는다면 결혼 성사가능성은 적었다.

작품에서는 왕씨의 혼인 절차가 전통적인 혼례과정을 따른다. 왕씨네 집안이 順順네 집안과 비슷한 경제적 수준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翠翠가 마을사

람들의 소문을 들으면서 긴장하게 되는 것이다. 왕씨는 ‘잘나가는 지방 명문 가 신랑감’인 둘째아들 離送에게 딸을 시집보내면서 방앗간까지 딸려 보내는 것이다. 일단 마을사람들은 離送이 방앗간보다 翠翠네의 나룻배를 더 타고 싶어 한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翠翠의 집안은 왕씨네와 정 반대로 경제적인 면, 사회적인 면 모두 順順의 집안에 비교가 되지 못한다. 이로써 翠翠가 離送의 전통적인 결혼상대는 분명 아닌 것이다. 그러나 정작 소설에서 왕씨 딸의 방앗간으로 인해 그리 큰 위기를 초래하지 않는다. 오히려 順順의 두 아들이 모두 翠翠를 두고 삼각관계를 벌인다. 왕씨 딸은 나름대로 규수로 자라 翠翠처럼 밖에 자주 다니거나 離送과 얼굴을 서로 확인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翠翠는 두 아들에게 자신의 자연적이고 맑은 매력을 발산할 기회를 가지고 있었다.

벧사공도 翠翠의 의견을 존중해주기 위해 그녀의 의중을 알아내려 갖은 애를 쓴다. 작가 沈從文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 작은 위기가 지나가는 것을 보여주며 두 사람의 평생을 좌우할 결혼이라는 큰일에 대해서 시골에서도 좋지 못한 전통 구습이 타파되어 있음을 표현해주는 대목이다.

두 번째로 이 작품에서 필요 이상으로 너무 자세하게 설명되었다라고 느껴지는 중국의 단오절(음력 5월 5일)이다. 단오는 1년 중 양기가 가장 왕성한 날이며 春節, 中秋節과 함께 3대 명절의 하나로 손꼽힌다. 단오절의 유래는 다양한데 애국 시인 屈原에 대한 기념설을 단오절의 기원으로 보는 관점이 많다. 屈原은 중국 전국 시대의 楚나라 사람으로 改革政治의 抱負를 갖고 일찍이 재상 밑에 좌도의 자리에도 올랐었으나 주위의 중상모략으로 인해 자리에서 쫓겨난 후 기원전 278년 5월5일 중국 湖南省을 흐르는 汨羅江에 빠져 자살했다. 전해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屈原이 물에 빠졌을 때 그의 죽음을 슬퍼하던 당시의 백성들이 힘껏 배를 저어 屈原을 구출하고자 하였다고 한다. 이것으로부터 단오절 풍속 중에 하나인 ‘龍舟競渡’라는 풍속이 생겼다. 곧 용머리로 장식된 배를 타고 상대방 배와 경주를 하는 것을 ‘龍舟競渡’라고 한다.

작품에서 주된 흐름을 이끌어어나가는 5명, 사공노인과 翠翠, 順順 三父子는 모두 평생을 배와 동고동락 해 오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항상 배와 물

을 만나야 한다. 이 마을에서는 단오날 강에서 용선경기와 오리잡기경기가 크게 열린다. 거의 매일 정적인 분위기만을 내는 시골에서 1년 중 翠翠와 順順의 아들이 서로 접촉하며 줄거리가 전개될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이 1년 중 양기가 가장 왕성한 단오절뿐이다. 이로써 이 명절은 도시와는 달리 조용하고 움직임이 적은 시골에서 줄거리를 전개할 때 그나마 단오절의 활발함에 도움을 받아 이야기를 전개해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해내고 있다. 이 밖에도 단오절이 1년에 단 하루라는 답답한 시간적인 흐름도 翠翠와 雛送, 天保가 서로 상대를 몰래 그리고 있음을 상상할 수 있게 해준다.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중국 苗族이다. 沈從文의 <邊城>은 말 그대로 변방 지역의 땅이라는 뜻이다. 중국에는 수많은 크고, 작은 少數民族 집단이 있다. 湘西지방 苗族들의 자연과 융합된 삶은 沈從文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지금도 苗族은 현대화속에서도 한족에 동화되지 않고 자신들만의 문화를 지키고 있는 민족으로 유명하다. 자신들의 소박한 전통을 중시하는 苗族들의 생활상에서 작가는 소설의 동기를 얻었다.

苗族은 중국에서 규모가 비교적 큰 少數民族에 속한다. 그들은 수천 년의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넓은 지역에 분포해 살아오고 있다. 여기에서 다루어진 貴州省은 중국 중남부의 산간 지역이고, 연간 날씨가 흐리고 햇볕을 볼 수 있는 날이 적어서 사실상 사람이 살기에는 악조건인 지역이기에 苗族과 같은 少數民族이 漢族에게 쫓겨서 이 지역에서 터를 잡고 살아왔다고 한다. 작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들은 다수인 한족들에게 정착지를 빼앗겼지만, 시골사람 특유의 낙관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沈從文이 湘西지역에서 그들을 보고 느낀 결과 그들의 자유로운 생활 방식에 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인공 翠翠는 苗族의 신화에 등장하는 이름을 빌린 것이라고 한다.

## 2. ‘물’의 상징성

<邊城>의 인물은 그 묘사가 자연에 비유하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 듯 묘사하여 인물에 대한 이미지를 독자 각자의 상상력에 맡겨 두고 있는 듯하다. 이 작품에서 象徵的 의미를 지닌 소재와 ‘물’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서 <邊城>이라는 작품을 통해 볼 수 있는 沈從文의 문학세계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茶峒을 외부로부터 단절시켜주는 지리적 역할을 해주며, 茶峒 사람들의 순수하고 해맑은 성격을 나타내준 ‘물’은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소재이다. ‘물’은 沈從文의 삶과 문학에 있어서 기초를 이루는 것으로, 모든 사물에 대한 思索과 認識을 ‘물’에서부터 배우게 된다. 沈從文이 주장하는 ‘넘치는 生命力’과 ‘건강한 人性’ 또한 ‘물’를 認識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물’에서부터 시작된 沈從文 文學의 특징은 ‘生命’에 대한 논의에 그치지 않고, 현실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킨다. 근대문명에 대한 비판, 그리고 文學의 정치화를 주장하는 좌익문학에 대한 비판과 같은 당면한 현실 문제들의 입장을 ‘물’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

沈從文은 그의 文學에서 ‘물’의 이미지를 통해 人間性을 관찰해왔다. ‘물’의 이미지는 <柏子>에서는 生命의 根源, <八駿圖>에서는 죽음과 파괴, <邊城>에서는 새로운 生命을 위한 현실의 淨化로 나타난다.<sup>75)</sup> 이 중에서도 ‘물의 글쓰기’에서 정화의 이미지는 가장 부각되는 이미지로, 沈從文의 변화의 순환론적 세계관에서 새로운 生命의 발판이 되는 위치에 있다. 그는 흐르는 강물에서 인생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배웠다. 흘러가는 강물은 조금씩 그 흐름을 변화시킨다. 그러나 갑자기 흐름이 끊어지는 등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생기지 않는다. 이러한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변화는 당시의 시대상황과 그의 의식세계 속에서 정화를 의미하는 것이 된다.

小說 속 뱃사공은 50년째 강가의 나룻배를 지키고 있다. 마땅히 쉬어야 할 때가 되었지만 하늘이 휴식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뱃사공은 떠날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일이 자기에게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다만 묵묵히 행할 뿐이다. 또 가끔 많지 않은 배삭을 지불하는 나그네가 있으면 오히려 자기는 가진 것이 많아 돈이 필요 없다며 시비를 건다. 정 거절하지 못하겠으면 연초 한 다발을 쥐어주거나 차를 대접한다. 뱃사공은 ‘시골 사람’의 전형으로 넘치는 生命力과 건강한 人性을 소유하고 있다. 언제나 근면하고 성실하며 선량하다. 자신의 이익보다는 강을 건너는 사람을 먼저 배려한다. 이렇게 뱃사공과 강은 한 덩어리가 된다.

75) 皇甫正河, <沈從文 小說 研究 -물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1.



翠翠 역시 그 발랄한 生命力과 맑은 정기를 강물의 이미지를 통해 획득한 인물이다. 다른 주요인물을 비롯해 모든 등장인물의 성격에는 모난 곳이 전혀 없다. 모두가 ‘물’과 같이 인생을 살다보니 점점 ‘물’을 닮아가는 생활태도가 자연스럽게 체화되었다. ‘물’의 이미지는 사건의 전개마다 등장한다. 翠翠와 雛送이 만나고 서로를 느끼게 되는 계기도 단오절의 오리잡기 경기에서다. 형 天保와 동생 雛送이 翠翠와 삼각관계를 이루지만 雛送이 승리한 후 天保는 ‘물’에 빠져 죽는다. 이때부터 ‘물’의 이미지는 죽음의 이미지로 다가온다. 마지막에 주요인물인 摆사공의 죽음도 ‘물’과 관계가 있다. 하늘에서 천둥과 함께 쏟아지는 빗물로 강이 범람하는 와중에 조용히 摆사공이 죽는다. ‘물’이 범람하여 여러 가지를 파괴하는 과정은 단지 의미 없는 파괴가 아니다. 무너졌던 ‘흰 탑’이 다시 복원되는 것은 이제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암시하는 부분이다. ‘물’의 파괴적인 속성이 역설적으로 모든 것의 깔끔한 정화로 이어지게 되면서 舊時代의 ‘흰 탑’은 강물이 휩쓸어갔다. 翠翠는 새로 지은 ‘흰 탑’과 함께 新世代의 새 시대를 상징한다.

그 외, ‘나룻배’는 翠翠가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는 통로 일 뿐만 아니라 翠翠와 혼담이 성사되지 않은 후에 雛送에게 혼담을 보낸 방앗간과 대비를 보여주고 있다. 방앗간은 봉건 매매혼인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으며, ‘나룻배’와 방앗간의 차이를 통해 인간 중심의 진정한 애정관과 물질 중심의 왜곡된 애정관을 대립시켜서 보여준다.

翠翠는 자신이 직접 ‘나룻배’를 이끄는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한다. 翠翠의 세계를 상징하며 摆사공 세계의 연속이라 할 수 있는 ‘나룻배’는 사공노인 일가의 3대에 걸친 비극적 운명을 상징적으로 이어줄 뿐만 아니라 절망으로 삶을 마감한 구세대 인물 摆사공과 고난 속에도 희망을 잃지 않는 신세대 인물 翠翠에 대한 작가의 비애와 그 비애를 극복하기를 바라는 희망을 동시에 품고 있다.

또 ‘흰 탑’은 摆사공 세대의 마감과 새로운 세대의 시작을 상징한다. 摆사공의 죽음과 함께 무너졌던 이 탑이 翠翠가 역경을 극복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 시작하자 온전한 모습을 갖춘다. 새로 완공된 ‘흰 탑’을 통해 우리는 翠翠가 과거에 겪었던 역경을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맞이하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 2.1. <邊城>과 강물<sup>76)</sup>

어린 시절에서부터 군대시절까지 沈從文의 인생여정은 향촌의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하였다. 湘西의 아름다운 자연과 그 안에서의 생활은 沈從文 문학의 기초를 이룬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강물의 형상은 아주 중요하게 부각된다. 湘西지역은 천리에 달하는 沅水와 여러지류가 만나는 湖南省의 변경에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강물(=水)의 형상은 사물에 대한 인식과 상상력을 키우는 공간으로, 沈從文 문학의 源泉이라 할수있다. 이러한 모습은 가라타니 고진<sup>77)</sup>이 말하는 ‘풍경의 발견’<sup>78)</sup>과 같은 맥락을 취한다고 볼 수 있다. 沈從文은 ‘물의 발견’을 통해 자신의 삶과 문학에 끌어들이고 있다. ‘풍경’은 외부세계의 疏遠化, 다른말로 ‘극도의 내면화’를 통해서 발견된다.

즉 외부 세계에 관심이 있는 인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외부세계에 등을 돌리는 ‘내면적 인간’에 의해 풍경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향촌의 식인적 봉건문화의 관습과 그가 군대에 있었던 생활은 ‘상상하기 힘든 고통스럽고 두려운’ 생활들의 연속으로 이는 그가 현실로부터 도피하게 되는 기제가 되는 것으로, 세계의 모순으로부터 눈을 감게 되는 이유이다. 물이 준 영향은 그의 작품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기쁘고 슬픈 기억에 대해 항상 유연해 지도록 하였고, 소설에 나타나는 언어들의 우울한 정조도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색하는 모든 것과 우주에 대한 인식도 바로 물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말하고 있는바 그의 미학적 관점 또한 물에서부터 시작된다.<sup>79)</sup>

76) 이 부분은 강경구, <沈從文 邊城에 나타난 강물의 상징>, 중국어문학21집, 영남중국어문학회, 1992.를 참조하여 정리했다.

77) 가라타니 고진은 “정치적 좌절로 인해 내면 =문학으로 향하는 패턴”의 등식을 세우는데 이는 좌절로 인한 내면세계로의 침잠을 이야기한다. 沈從文에게 있어서는 ‘정치적 좌절’과 조금은 다른 양상을 띠지만, 북경이라는 도시로 진입하면서 가졌던 ‘문학혁명의 이미지와 새로운 사회 이상과 희망’이 좌절되면서 깊은 내면으로의 침잠을 하게된다.

78) ‘풍경’은 내면적인 상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즉 풍경이 이른바 외부세계에 관심이 있는 인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외부세계에 등을돌린 ‘내면적인간’에 의해 발견된다는 것이다. 가라타니 고진 著, 박유하 譯, 일본근대문학의기원, 민음사, 1997, p.83.[위의 말은 ‘내면적 인간’이라는 것이 먼저 존재하고, 그것이 풍경을 발견했다는 것이 아니다. 풍경은 이미 존재하고있다. 다만 풍경이 출현하기 위해서는 지각 양태가 변하지 않으면 안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사건, 고진의 개념으로 ‘근본적인 倒錯’이 필요하다.]

79) 沈從文은 전문적인 美學이나 문예이론에 관한 저술은없다. 그러나 그가 예술을 논하고 창작을 논한 문장은 적지않은데, 예를들면 「廢郵存底」・「爛虛」・「水雲」・「邊城・題記」・「長河・題記」・

부연 설명을 하자면 그의 생활과 떨어질 수 없는 물'이라는 것은 고전이 말하는 '풍경'에 비유할 수 있다. '물'을 통하여 "美를 인식하고, 思索을 배우는"는 모습에서 내면으로 깊이 침잠해 가는 인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sup>80)</sup>

沈從文은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본 '살인' 현장의 장면과, 현실의 비인간적 삶의 형태와 같은 여러 모순들을 목격하면서 현실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크게 느끼게 된다. 이런 현실 도피를 할 수 있는 공간 혹은 위안처, 휴식처를 沈從文은 강물에서 찾았다는 것이다.

沈從文은 일찍이 그의 소설이 '강물로부터 들은 내용을 옮긴 것'이라는 점을 밝힌 바 있다.<sup>81)</sup> 湘西 지방에서의 沈從文의 어린 시절과 군생활의 경험은 강물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는 그의 창작의 원천이었다. 湘西 지역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沈從文에게 물이라는 것은 그에게 철학적인 지혜를 가르쳐주고 그의 문학적 상상력을 길러낸 원천임을 알려준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소설이 강물로부터 들은 내용을 옮긴 것이라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다. 작품에서 나타나는 강물은 자연과 인간 사회를 포괄하는 공간적 배경일 뿐만 아니라 이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 삶의 본질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작품 <邊城>이 상징성이 풍부한 작품이라 하면 작품 속에서 나타나는 강물 배경은 행동과 사건의 단순한 물리적 배경이 아니라 이야기의 발전에 직접적이고 긴밀한 관련이 있는 본질적인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강물에 대한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또 인생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에 대한 규명은 보다 넓은 시야에서 작품의 주제를 밝혀 줄 수 있다.

## 2.2. 강물과 생명

---

「從文小說習作選·代序」·「沈從文小說選集·題記」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중국현대작가를 논한 「末涑集」 등이 있다. 沈從文은 비록 이러한 저작들에서 문예이론과 미학 그리고 예술과 창작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만, 이러한 인식들의 기초는 美와人生에 대한 확고한 신념에 기초하고 있다.

80) “나의 감정은 유동적이며 응고되지 않아서 한 조각의 푸른 파도라도 나에게 준영향은 실제로적 지않다. 나의 어렸을 때의 비교적 아름다운 생활은 대부분 물과 떨어질 수 없다. 나의 학교는 물가에 있었다. 내가 美를 알고 思索을 하는데 물은 나와 극히 큰 관계를 갖고 있다.” “我感情流動而不凝固，一波清波給子我的影響實在不小。我幼小時較美麗的生活，大部分都同水不能分離。我的學校可以說是在水邊的，我認識美，學會思索，水對我有極大的關係” 「從文自傳」，「沈從文文集」第9卷，花城出版社，1992，p.109.

81) “寫小說是河水告他的” 《沈從文文集》 第6卷，花城出版社，1992，p.167.

강물은 인간에게 혜택을 주고 인간이 삶을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하는 대상으로 이해된다. 이는 강물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인간의 풍요롭고 평화로운 삶의 모습에서 잘 알 수 있다. 강물의 혜택으로 인해 茶峒 사람들이 풍요롭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강물의 혜택으로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이다. 이런 강물은 인간의 삶에 기본적인 물질적 혜택을 제공하며, 동시에 끊임 없는 생명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강물은 일찍이 대지의 젖줄로서 만물을 생성하게 하는 상징적인 것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茶峒을 에워싸고 흐르는 강물은 순수한 이미지 샘플에 의해 끊임없이 생성되는 것이고, 이 샘플은 영원히 마르지 않은 채 흐르며 茶峒을 평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끊임없이 생성되고 茶峒을 풍요롭게 하는 강물은 생명의 원천이다. 茶峒의 젊은 세대인 翠翠, 天保, 雛送의 탄생과 관련이 있으며, 삶의 단순함과 적막함은 때때로 단조로운 삶의 권태를 느끼게 해주지만 사색의 여유를 주기도 한다. 이러한 사색이 강물의 맑고 잔잔한 이미지와 결합 될 때 인간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고 인생살이의 애증과 필연에 대한 어떠한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에게 꿈을 안겨주며 인간자신과 세계를 더욱더 사랑하는 열정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강물은 인간에게 이상적인 삶의 형식을 제시하는 동시에 또한 강물에 적극적으로 하나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생명력의 환희와, 삶의 활력을 안겨준다.

### 2.3. 강물과 애정

沈從文的 작품 <邊城>을 통해 건강하고, 자연스럽고, 인성에 어긋나지 않은 인간의 삶의 모습과 그 속에서 느끼는 슬픔과 즐거움을 표현하고자 했다. 작품에서 나타나는 강물은 茶峒 사람들의 삶의 원천이며, 또한 동시에 강물의 파괴, 죽음, 조화, 생명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인간의 삶 그자체인 것이다. 즉 작가는 강물의 상징적 의미를 통하여 인생형식을 제시하고, 작가가 강조하는 열정과 비애의 의미는 곧 작품에 나타나는 강물의 상징적 의미와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강물의 속성은 인생의 비애에 대한 상징이며, 조화와 생명이라는 강물의 속

성은 인생의 열정에 대한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인생형식의 상징으로서의 강물은 열정과 비애라는 측면이 있다.

강물의 파괴와 죽음이라는 속성은 인생의 비애를 상징한다. <邊城>의 강물은 고통스러운 몸부림과 시골 사람들의 애정에 대한 동경을 함께 담고있다. 이는 작가가 과거 湘西지방에서 직접 체험했던 시골사람의 애정과 비극적 운명, 고통을 그의 고통과 함께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한다. 나룻터와 강물이라는 풍경속에서 자연과 인간이 하나되고 인간과 인간이 노래로써 하나되어 삶의 활력과 아름다움, 삶의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이다. 그러나 이런 삶의 활력과 아름다움 역시 노래 소리가 모든 것의 고요함을 확인시켜 주듯이, 삶의 비애를 떠올리게 하며, 삶의 열정과 비애가 공존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 2.4. 강물과 죽음

<邊城>에서 강물은 파괴와 죽음 그리고 조화와 생명이라는 두 가지 상반되는 상징적의미를 지니고 있다. <邊城>에 나타나는 강물의 상징은 우선 인간의 이성과 의지로써 극복할 수 없는 자연의 파괴적인 힘으로 이해 할 수 있다. 강물은 인간이 이루어놓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짧은 시간에 남김없이 거두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능력으로 제지 할 수 없는 강물의 파괴적인 힘은 강물에 의지하는 농경사회에 있어 더욱 위협적이고 절대적인 것이 된다. 따라서 인간은 이러한 강물의 폭력적인 힘에 의해서 자연의 힘들을 의식하게 되고, 엄청난 자연의 힘을 지닌 강물은 인간의 생명 까지도 거두어 가는 것으로 이해된다. 곧 죽음 그 자체는 인간이 그것에 대해 투쟁하려 하나 어쩔 수 없이 굴복해야만 하는 절대적인 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죽음의 상징으로서의 강물은 인물들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 翠翠 모친의 죽음과 天保의 죽음은 강물이 그들의 생명을 거두어 간 것이고, 曩사공의 죽음 또한 강물과 관련이 있다. 이는 曩사공의 분신이라 할 수 있는 나룻배가 그가 죽던 날 밤 떠내려갔음에서 알 수 있다.

曩사공의 죽음은 翠翠에 의해 발견되기 이전에 나룻배가 떠내려갔음을 통해

예시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파괴와 죽음이라는 강물의 상징은 인물의 숙명적 운명관으로 되어 나타난다. 강물은 죽음을 상징하며, 인간에게 있어 운명적이고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려준다. 그리고 작품속의 우연적 사건인 오해, 죽음과도 관련이 있다. 운명적 성격을 지닌 오해와 죽음이라는 사건은 우연적 사건이지만 파괴와 죽음이라는 상징적의미를 지니는 강물과 결부되어 그 개연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강물은 생명, 애정, 파괴와 죽음을 상징하며 인간의 삶 자체를 상징하기도 한다. 작가는 이러한 강물로 열정과 비애가 공존하는 인간의 본연적 삶의 모습, 바로 인생형식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강물의 상징은 작품의 주제를 인간의 삶이라는 좀 더 근원적인 곳에 놓고 이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문학을 정치의 선전도구로 전락시키는 오류를 범하기도 하였던 당시 좌익작가들의 문학과 달리 인생의 깊이 있는 묘사라는 문학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지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第5章 <邊城>의 인물형상을 통한 주제 분석

沈從文은 농촌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자연스럽고 인성에 어긋나지 않는 인생형식과 인류의 보편적인 사랑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가 작품 속에서 나타내고자 했던 것은 바로 자신의 고향에서 삶의 본질적 진리를 찾거나 현실에서의 고통을 위안 받으려는 귀향의식이라 할 수 있다. 이 귀향의식은 “농업문명사회 가치관의 최고 형태로서 사대부 문인이 田園을 우주적 차원으로 확대하거나 자신의 전체적 인격으로 내면화시킴 으로서 자신을 天人合一의 경계에 이르게 하고, 자신의 생명을 최고의 경험의 세계로 올려놓는” 중국의 전통적인 사상이기도 하다.<sup>82)</sup>

앞장에의 작가의 생애를 통해 알 수 있듯, 沈從文이 도시에서 작가로서의 생활을 하면서 처음 겪었던 것은 자신의 고향 湘西지역과 다른 도시 문명사회의 타락한 현실이었다. 이에 농촌사람들의 소박한 삶의 모습을 예찬하는 작가 특유의 문학세계가 형성되었고, 이는 현실의 모순과 고통의 해결방법을 자신의 고향에서 찾고자 하는 귀향의식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sup>83)</sup> 작가 沈從文에게서 나타나는 귀향의식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 농촌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자연스럽고 인성에 어긋나지 않는 인생형식과 사람들의 보편적인 사랑을 표현하여 현실의 모순에 대응하려는 특징이 있다.

둘째, 정치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타락한 도시 문명사회와 각박한 삶의 현실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인생에 대한 성찰을 하고 이를 통해 보편적인 삶의 진리를 추구하려는 특징이 있다. 이는 ‘아름답고 강건하며 자연스럽고 또 인성에 어긋나지 않는 인생형식을 표현하고자 하고, 평범함 사람들이 가지는 인생의 哀樂을 빌어 인류의 사랑이란 말에 꼭 알맞은 설명을 하고자 한다는

82) “這是一種農業文明價值觀的最高體現，是士大夫文人把田園放大成宇宙，內化爲全部人格，達到自己‘天人合一’的境界，並把自己生命推向了體驗的高峯”李銳，〈中國人的慢性鄉土病〉（1983년 《山西文學》第4期），〈試論邊城的“返樸歸真”特色〉（陳旭，1990《中國文學研究》第3期），p92

83) 작가의 독특한 귀향의식에 관한 연구는 일찍이 많은 沈從文 연구가들에 의해 시도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작가의 귀향의식과 창작세계와의 관계를 다루거나 작가가 즐겨 사용한 ‘鄉下人’의 의미를 고찰한 것으로서 劉一友의 〈論沈從文的鄉情及其邊城創作〉（《沈從文研究》제1집），孫韜龍의〈談沈從文的 鄉下人 概念〉（《沈從文研究》제1집），陳旭의 〈試論邊城的“返樸歸真”特色〉（《中國文學研究》第3期，1990.）등이 있다.

작가의 말'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sup>84)</sup>

작품 <邊城>에 나타나는 인간의 생명과 아름다운 품성에 대한 예찬은 도시 물질문명 속에서 타락하는 윤리, 도덕에 대한 비판적 의미와 함께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공리주의적인 특징을 띠고 있다.

<邊城>에 등장하는 인물은 적지 않으며, 그들은 한결같이 중국의 변경 湘西 특유의 소박하면서도 건강한 인물 형상으로 그려지고 있다. 특히 이 작품에서 서사의 핵심대상인 뱃사공과 그의 손녀 翠翠는 작가가 가장 공들여 창조한 인물형상이다. 작가는 이 작품에서 뱃사공과 손녀의 생존방식과 삶에 대한 자세 등을 중점적으로 묘사하며, 그들의 인물형상을 섬세하게 그려냄으로써 작품의 밀도를 심화시켰다. 주인공들의 삶 속에 내재하고 있는 운명의 비극적 성격을 대비적으로 고찰하는 작업은 이 작품이 지니고 있는 비극성을 이해하는데 있어 관건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 第1節 原始自然의 生命力

<邊城>에서 뱃사공이 舊世代에 해당하는 인물이라면 이에 대응 하는 新世代 인물인 翠翠의 형상은 뱃사공과 동일한 공간과 유사한 환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추구하는 면에서도 의미구조상 명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생명은 인간의 자연적 속성이며, 아름다운 품성은 공동체적 삶을 지향하는 인간의 사회적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邊城>은 인간의 자연적, 사회적 속성인 인성이 실현되는 이상적인 세계에 대해 창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상적인 세계의 의식적인 추구는 당시 도시문명사회의 타락한 모습을 대비시킴으로써 현실에 대한 비판적 역할까지 하게 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오해와 죽음이라는 우연적 사건을 겪으면서 예찬되었던 인간의 생명과 아름다운 품성이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으며 결국 이러한 것은 '가련한' 소녀 翠翠 그녀의 이름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자연적 환경에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성장하며, 부모의 부재 속에 할아버지의 손에 홀로자란 翠翠는 자신에게 필연적으로 주어진 비극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맑고 건강한 소녀로 성장한다.

---

84) 凌宇, 《沈從文傳》, 北京十月文藝出版社, 1991, p.213



자연속에서 호흡하고 성장하면서 자연의 맑은 정기를 이어받고 한편으로 선량하고 순박한 할아버지의 보살핌과 가르침을 받고 자라난 翠翠는 자연스럽게 할아버지의 훌륭한 품덕을 가지게 되었고, 산골에 거주하는 소녀 고유의 덕성을 겸비하게 되었다.

翠翠는 자연 속에서 자연의 양육을 받으며 맑고 건강하게 성장하였으며, 대나무의 푸른 산과 푸른물, 바람과 햇볕은 모두 翠翠의 일부분이다. 그것들은 공동으로 독자의 마음속에 이 여자에의 아름다운 인상을 조성하는 것이다.

翠翠는 또 몽상과 환상이 풍부하여, 늘 몽상과 환상 속에서 생활하는데, 이런 환상은 바로 翠翠의 희망과 우려의 혼합체라 한다. 翠翠는 단오절에 마을로 갔다가 할아버지를 기다리면서 자신이 고기에 잡아먹히는 광경을 상상하기도 하는 한편 밤늦도록 오지 않는 뱃사공의 죽음을 상상하면서 겁을 내기도 하지만 곧 뱃사공이 죽지 않았을 것이라 추측하고 자신을 위로하기도 한다. 이런 몽상들은 시골사람의 내면생활의 한 측면이라 할 수 있고, 시골사람은 자기의 감정을 의식할 수 없으며, 외부사회의 행위를 분류 할 수 없고 그저 이일들의 본질을 분석하여 새로운 의의를 부여할 수 있을뿐이다.

이처럼 翠翠는 도시문명에 때 묻지 않고 순박함과 동시에 순결함을 지니고 있으며, 산골소녀 특유의 맑고 투명한 성품을 유지하고 있다. 작가는 翠翠에게서 당대 중국 도시의 紳士淑女와는 완전한 대조를 이루는 천진, 순박, 총명, 선량, 열정의 생명활력을 발견했다. 茶峒이라는 공간에서 70평생을 선량하고 순박하게 살아온 뱃사공의 모든 우수한 품격을 계승한 翠翠는 분명 작가가 구도하는 이상 속의 새로운 문화를 대표하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아름답고 건강하고 자연스러우면서도 인성에 위배되지 않는 삶의 양식 속에서 작가는 인간과 민족의 품덕을 새롭게 건립할 수 있으라는 희망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翠翠의 존재는 작품 전체에 걸쳐 폭넓게 배어 있는 우울한 분위기를 극복하게 해주는 한편, 비애속에 절망적 삶을 마감하는 舊世代인 뱃사공에 대응하여 비애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 新世代의 생명력을 느끼게 해주는 인물형상이다.

이 소설을 이끌어 가는 또 하나의 축인 天保와 傩送은 배를 관리하는 順順의 두 아들이다. 이들 또한 오염되지 않은 인격을 소유한 湘西의 청년들로서

아버지의 특별한 교육을 받아 어려서부터 茶峒 사람들의 관심과 지극한 사랑을 받아온 청년들이다. 이들은 비교적 넉넉한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약하게 현실에 안주하지 않으며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우습게 보지 않았던 것은 그 부모의 훌륭한 교육의 결과였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오히려 강한 체력과 근면함으로 茶峒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이었고, 이들은 翠翠와 더불어 湘西의 자연 속에서 성장한 원초적 생명력을 소유한 인물들로 묘사되었다. 후에 天保의 翠翠에 대한 청혼이 별다른 진전이 없이 무위로 돌아가고 동생 傩送이 翠翠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게 되므로 한층 복잡하게 일이 전개되자 天保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으로부터 떠나기를 위하여 길을 나섰다 뜻하지 않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결국 이일은 傩送이 집을 나서게 되는 촉매 역할을 한다. 傩送은 뱃사공에 대해 솔직하지 못하고 실속이 없는 노인이라는 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러던 차에 아버지와의 의견충돌로 인해 집을 나선다. 이것은 翠翠의 기다림을 낳는 행위인 동시에 이 소설에 있어서 새로운 이야기의 출발점이 된다.

## 第2節 純粹 共同體的 삶

일반적인 경우 70세 나이의 노인이라면 이미 노동 일선에서 물러나 노년을 보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현상일 터이지만, 뱃사공은 여전히 50년간이나 나룻배에서 손을 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동년배들처럼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크게 개의치 않았으며, 다만 그러한 것이 하늘의 뜻이라고 여기고, 자신의 운명으로 수긍하고 있다는 것이다. 뱃사공이 이렇게 남과 다른 삶을 유지하고 있는 까닭은 남성으로서 또 그의 유일한 혈육인 손녀 翠翠의 존재에 있다. 70세의 뱃사공에게 손녀는 곧 그의 삶 자체이며, 그가 생명을 부지하고 생활의 활력을 잃지 않을 수 있게 만드는 가장 큰 원천이라 할 수 있다. <邊城>에서 뱃사공은 과거 湘西인들이 지녔던 ‘인성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언제나 자애롭고 성실한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邊城>에서 나오는 뱃사공의 모습은 일상적인 노인의 전형처럼 여겨지는

완고함이나 쇠잔함이란 찾아볼 수 없고, 정직하고 평화로운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나이에 비해 활력이 있고 역동적인 인생을 살고 있음을 보여 준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자신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고, 소박하고 인정 많은 뱃사공의 형상을 더욱 생동감 넘치게 하는 것은 술을 즐기고 남과 잘 어울리는 그의 낙천적인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 그의 낙천성은 중국의 변방인 茶峒 사람들의 보편적인 성품을 대변하는 것으로, 그의 낙천성 덕분에 힘겨운 삶을 감안할 수 있음은 물론 남들까지 배려 할 수 있는 것이다. 뱃사공은 술을 즐기고 남과 잘 어울리고, 세상사에도 관심이 많으며, 그 나름대로의 소박하면서도 세속적인 욕심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뱃사공이 품은 욕심은 재물에 대한 무분별한 탐욕과는 분명하게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사공의 처지에 부합하는 분수를 지킬 줄 아는 삶의 태도에 있다.

뱃사공은 반면에 또 자신의 나이를 부담스럽게 생각한다. 그것은 자신의 나이가 손녀 翠翠의 인생과도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고 볼 수 있다. 딸을 잃은 불행을 이미 한 차례 경험한 뱃사공으로서 어린 손녀가 장성해서 자기 품을 떠날 때까지 마음 놓을 수 없는 처지지만, 70세의 인간의 능력 밖에 있는 불가항력적 존재인 죽음의 문제를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70세라는 나이의 노인으로서 늘 죽음을 의식하고 또 예감으로 인해, 평소의 낙천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종종 조급한 모습을 드러낼 수 밖에 없으며, 원하지 않는 실수도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인생의 沉重함과 생명의 有限성을 감지하기 때문에 뱃사공의 인물형상은 낙천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내면세계의 우울한 정조를 지울 수 없는 것이다.

뱃사공은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끼면서 소박하고 다감하며 낙천적인 품성을 잃지 않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낙천적인 성격의 소유자인 뱃사공의 내면 깊은 곳에는 자신의 신변에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그 실체를 명확히 인지할 수 없는 막연한 두려움을 지니고 있다. 그 막연한 두려움은 그 자신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을 것으로 감지되는 두려움으로, 뱃사공이 진작에 겪은 불행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객관사물에 대한 과

학적 인식을 결여한 뱃사공으로서 인간사의 행복과 불행의 소재를 ‘하늘’의 탓으로 돌릴 수밖에 없으며, 그런 까닭에 운명을 하늘에 맡기는 의존 심리를 지니는 한편 불행이 닥칠 경우 하늘을 원망하는 모순된 심리를 드러낸 인물이 된다.

中國의 傳統的인 風物에 대한 묘사와 더불어, 傳統的 사상이나 가치관을 지닌 鄉村民들의 심리상태를 작가의 주관적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고 꾸밈없이 묘사하기도 했지만, 小說의 전체적 진행속에서 沈從文은 전통적 價値觀을 否定하고 있다.

翠翠 부모는 그들의 사랑에 대한 외적인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세상을 등지고 현실을 도피하고자 하나 군인의 의무와 고독한 아버지 때문에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결국 자살을 한다. 軍人의 의무는 忠이고 고독한 아버지에 대한 연민이 孝라면, 사랑을 위한 도피는 人性의 건강한 모습으로서 작가가 추구하는 主題와도 일치한다. 사랑에 가해지는 외적인 억압으로 인해 자살이라는 길을 선택한 것은 人性의 중요성을 극단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비극적 자살이 가능하게 한 것은 또한 외적인 제약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주어진 운명을 발전적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비극적 결말을 맞이한다. 즉 건강한 人性에 대한 결연한 추구는 외적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아울러 翠翠의 비극적 사랑에도 이런 외적인 환경의 영향을 받았다고 추측 할 수 있고, 이런 비극적 人間關係에 대한 타파는 소설의 통해 나타나 있다.

沈從文은 전통에 얽매인 思想, 價値觀, 道德觀念보다는 人性에 부합되는 가치세계를 우위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이들이 당면한 모순을 발전적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이라는 소극적 삶을 택했다는 한계성이 존재한다. 이런 한계점은 바로 湘西의 일반 대중들이 겪어왔던 비운의 역사와도 일치한다.

또한 茶峒에서 상업계층으로 성공한 인물로 묘사되고 있는 順順은 나이가 50세로 다리의 통증으로 인해 똑바로 걸지는 못하지만, 매사에 너무나도 공평되고 사심이 없어 마을의 지주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성격은 정열적이고, 물불을 가리지 않을 정도의 열정을 지닌 가슴 따뜻한 사람이다. 특히 누군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는 그곳이 물이든 불이든 몸

을 던져서라도 구해 주어야 마음이 편한 그림 사람이고, 비교적 부유하고 안락한 환경에 있으면서도 집 떠난 사람의 고통과 실의에 빠진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다.

順順이 생활하던 곳은 삶의 무대 자체가 물과 함께 살아가는 곳이었고 물속에서 목숨을 잃는 일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물에 빠진 사람이 누구든지 자신의 목숨을 걸 정도로 인간에 대한 사람의 마음이 충만하였다. 때문에, 자신의 아들의 배우자를 택하는 일에도 자기와 비슷한 처지의 재력을 가진 자와의 혼사를 꿈꾸거나 전제조건으로 삼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하여 뱃사공의 외손녀 翠翠에게 관심을 가질 정도의 순수함과 때묻지 않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沈從文은 茶峒사람 특유의 인성미를 이 順順을 통해 구현하고 있다. 당시 그의 환경으로는 훨씬 좋은 혼처를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제대로 자랑할 것 없는 뱃사공의 외손녀 翠翠를 선택한 것은, 순수함과 사람 됨됨이를 중요시 여기는 茶峒사람 특유의 인간성이 배어 있는 결정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뱃사공이 세상을 떠났을 때 최선을 다해 도움을 베풀고 후하게 장례를 지내주는 따뜻한 모습의 順順을 볼 수 있으며, 남겨진 翠翠를 거두기 위해 처신하는 모습도 매우 인간적이며 따뜻함을 느끼게 해준다.

順順이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沈從文은 順順을 묘사함에 있어서 그의 다른 소설과 달리 그에 대해 비교적 많은 애정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順順이 경제적인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湘西 향촌 세계의 일반적인 湘西인과 마찬가지로 성실하고 근면한 모습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같이 沈從文은 順順에게 과거 아름다운 湘西세계의 소박한 성격과 함께 근대 물질문명하의 상인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梁馬兵은 뱃사공의 오래된 친구이다. 실상 梁馬兵은 실제 이름이 아니다. 옛날 말을 관리하던 직업을 가졌던 것이 인연이 되어 이렇게 불리고 있는 것이다. 그는 옛날 한때 翠翠의 엄마가 된 뱃사공의 외동딸을 좋아해서 노래를 부르기도 했지만, 翠翠 엄마의 승낙을 받지 못해 그 사랑을 이루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그의 늙은 친구 뱃사공이 세상을 떠났으므로 돌볼 사람 없는 가련한 翠翠의 보호자가 된 것이다.

梁馬兵은 이야기 솜씨가 매우 뛰어나고 진실했으며 생활태도가 매우 성실하였고 노래에도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었다. 뱃사공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가장 가까이에서 그를 위해 일하고 손수 모든 장례의 일들을 주선한 사람이며, 할아버지를 여윈 소녀인 翠翠가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 저지를 지도 모르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배려하는 주도면밀한 성격도 엿볼 수 있다. 또한 翠翠의 장래를 뱃사공을 대신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강력한 책임의식도 있는 茶峒의 한 사람이다.

이처럼 沈從文의 작품 속 남성들은 극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대결하고 적응하며 살아간다. 그것은 성취하는 일이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강한 영웅적 색채와 강건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第 3 節 <邊城>의 창작 특징

#### 1. <邊城>의 불안정성

小説의 전개는 원래 불안정성에서부터 시작된다. 즉 사건은 완벽한 상황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邊城>은 다른 小説들과 달리 이렇다 할 큰 대립이나, 사회적 상황은 찾아볼 수 없으나 개인적인 세세한 불안정성으로부터 이야기가 전개되어 나간다.

우선 뱃사공의 불안정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뱃사공이란 인물을 보면 웬지 모를 외로움이 느껴진다. 그것은 아마도 고립된 어촌, 아내가 없는 상황에서 어린 딸마저 잃어버리는 적막감과 슬픔 때문일 것이다. 또한 하나있던 딸도 자살을 해 버리고 만다. 하나 남은 손녀가 커가는 것을 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지만 손녀 또한 딸의 운명이 될까봐 늘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 못하다. 뱃사공의 딜레마는 바로 이 손녀와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늙어서 곧 죽음을 앞두고 翠翠 혼자 세상에 남을 까봐 걱정을 한다. 한편으로 翠翠가 떠난 삶을 생각하는 것 또한 괴로움일 뿐이다. 뱃사공은 翠翠를 행복하게 하려고 여러모로 애를 쓰지만 결국 뜻대로 되지 않고 슬프기만 하다. 완벽한 상황이 아닌 사공노인의 이러한 불안정한 모습을 보고 있다면 읽는 사람 또한 저절로 뱃사공의 사랑과 슬픔을 느끼게 된다.

翠翠의 불안정성은 다음과 같다. 딸은 어머니를 닮는다고 한다. 그러므로 翠翠의 엄마 이야기는 翠翠가 세상에 날 때부터 그녀의 불안정성으로 자리 잡는다. 또한 뱃사공이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 翠翠를 애달파 하는 것처럼, 翠翠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뱃사공이 그녀의 전부이기에 항상 불안하다. 단오절에 뱃사공을 기다리며 할아버지가 죽었다고 생각한 것에서 알 수 있듯, 그녀는 늘 뱃사공의 죽음을 생각해야 했다. 그리고 翠翠의 나이인 15살, 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해야만 하는 이 시기는 어떻게든지 변해야 하는 翠翠의 운명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등장인물들 간의 관계에도 불안정성은 존재한다. 정상적인 남녀 간의 사랑에서는 삼각관계는 완전할 수 없는 관계이다. 小說에는 잔잔하게 표현하였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하나가 꼭 양보해야하는 상황과 그 인물들이 형제라는 설정은 비극적인 사건을 암시한다. 즉 세 사람 중 적어도 한사람은 불행해져야하는 관계인 것이다. 결국 작품 속에서는 큰 아들이 떠나다가 암초에 걸려 죽게 되어 큰 갈등이란 존재할 것 같지 않은 주인공들에게 커다란 불안정성을 안겨준다.

마지막으로 작품의 배경인 茶峒은 아직은 현대화가 되지 않은 아주 깨끗한 마을이다. 군인들은 나팔부는 일만 하면 되고 마을 사람들은 기너조차 박대하지 않는, 정말 이상적인 마을이다. 시대 배경은 淸나라가 무너지는 급박한 革命기이지만, 이 마을은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티끌 하나 없는 순수함은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불안정한 요소로 자리 잡는다.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시대상황에 너무 어울리지 않는 이 마을은 사실 변화할 잠재적 가능성이 아주 많다. 언제 변할지 모르는 이러한 순수함은 보는 이로 하여금 향수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여 작품을 더욱 흥미롭게 한다.

작품에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불안정성은 바로 외로움, 적막감, 따스함, 슬픔들이다. 한마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정서인 것이다. 뱃사공과 翠翠의 관계, 두 형제와 翠翠의 사랑, 이제는 찾아보기 힘든 마을의 불안정성은 모두 이러한 애뜻한 정서가 깔려 작품을 감상하는데 더욱 재미를 더한다.

## 2. <邊城>의 象徵性

沈從文的 小説은 대부분 자신이 표현하려고 한 의표를 直接的으로 표출하지 않았으며, 고도의 상징적 의미가 담긴 자연물이나 등장인물의 심리와 행동, 외모, 줄거리의 전개 등을 이용하여 함축되고 절제된 것이 중요한 특징이다. 그의 作品에 抒情性이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것도 이런 상징적 표현의 기교이기 때문이다.

沈從文的 小説에서 象徵은 이미지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八觀圖>의 大海는 自然이 무궁한 활력을 지닌 인생에 부합됨과 동시에 또한 주인공 達土先生의 심리상태는 現代文明人의 병폐적 심리상태를 象徵하고있다. <菜園>의 國화는 美의 화신이고, <夫歸>의 들꽃과 신혼부부의 행위자체는 원시적 生命活力의 象徵이다. 또한 <邊城>의 주인공 翠翠는 原始的 自然美의 象徵이며, 白搭은 湘西社會의 구질서에 대한 象徵物이다. 이런 象徵的 意義를 포함하고 있는 이미지는 小説의 시야를 넓히고, 또는 사건의 內在的 의미를 암시하며 小説의 藝術的 表現공간을 擴大하였다.

이처럼 그가 象徵的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매개체는 大自然의 存在들과 등장인물의 심리상태와 행위, 다양한 전개형태를 갖춘 사건들이며, 이런 象徵物에 자신의 도덕적, 윤리적 지침을 기탁하였다. 象徵의 내면에는 文明에 대한 비판적 암시, 原始的 生命活力에 바탕을 둔 人性美, 새로운 도덕적 관념 등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는 이런 象徵性을 고도로 발휘하여 극히 낭만적이고 환상적인 小説을 탄생시켰으며, 그가 의도하고자 하는 도덕적 심미적 지표를 낭만적이고 환상적인 표현방법을 이용해 象徵的으로 나타내고 있다.

<屠桌邊>(1925)으로부터 <長河>(1948) 에 이르기까지 沈從文的 湘西를 제재로 한 小説은 백편이 넘으며 대체적으로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째는 人物의 運命을 묘사하고, 하층인물의 평범한 일상적 生活의 노래를 묘사하는데 주의한 것이다. 둘째는 기이한 사건을 장식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湘西의 특이한 民情과 風俗의 그림이다. 그중 대부분의 作品은 상당한 정도 詩化의 藝術的 特徵을 구비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邊城>이라는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이 小説의 배경은 原始的인 自然美가 存在하는 오염되지 않은 변경지방의 象徵인 것이다. 이같은 주위 環境의 理



想化된 설정은 作家가 작품을 통하여 묘사하려는 총체적 象徴의 정지작업이다.

이처럼 自然環境의 理想的인 설정과 더불어 등장인물들도 자연히 原始的인 生命力이 넘치며, 순박하고 온화한 人性美를 갖추고 있다. 즉, <邊城>의 自然環境과 등장인물들은 모두 作家의 주관적 심미의식이 투영된 理想化된 개체들이며, 풍부한 정감으로 작품에 詩意가 충만해 있다.

절대적인 自然美를 갖춘 여주인공 翠翠와 船主인 아버지를 둔 雛送의 사랑은 부모님들의 오해와 우연적 요소들로 인하여 비극으로 종결되나, 이들간의 사랑은 외부적 環境의 요인들로 인해 비극으로 발전한다. 雛送의 翠翠에 대한 사랑은 自然의 절대미에 대한 추구로써, 이들의 사랑에는 인간본성의 회복이라는 作者의 주관적 象徴이 개입되어있다. 白塔이 증견되었으므로 멀지 않아 雛送이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강력히 암시하며, 作者는 또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으로 沈從文의 文學作品은 극도의 象徴과 抒情이 융합되어 그가 추구하고자 하는 개성적인 小說을 完成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의 湘西를 제재로 한 小說에서는 湘西의 原始的인 人性美가 도덕적 기준이 되었고, 이런 理想을 文學作品에 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湘西의 모든 “自然的 生命形式”은 자연히 象徴的이고 抒情的인 의미가 부여되었으며, 환상과 꿈이 충만한 詩化된 文學世界를 구축하였다. 즉 그는 등장인물의 性格을 典型化시킨다거나 주제사상을 강조하기 위한 갈등의 심화에 주의하지 않고, 象徴의 주된 目的인 그가 체험한 人生經驗으로부터 얻어진 가치관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抒情的 技法을 이러한 가치관으로 주제사상을 돋보이게 하는데 그 효능이 발휘하게 되었다.

### 3. <邊城>의 抒情性

抒情性이란 대상을 의미나 개념으로 파악하지 않고 감정이나 느낌으로 이해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것은 음악의 세계와 매우 유사하다. 음악에서는 직접적이고 분명한 의미, 혹은 개념의 전달이지만, 소리의 변화가 주는 감각적인 분위기와 느낌이 어떤 감정을 유발시키고, 聽者는 자신의 주관을 통

해 그 의미를 상상할 따름이다. 또한 抒情性은 인간이 외부적 사물과 접촉하면서 자기가 보고 느낀 것의 감정을 펼쳐내는 성질이라는 독자적 의미 해석이 가능하다. 주체와 객체, 자아와 세계, 주관과 객관이 상호 침투되어 순간적 상태로 융합된 이러한 抒情性의 세계는 중국문학에서 가장 이상적인 경계로 생각된다.<sup>85)</sup>

현대작가 중 문장력이 가장 뛰어난 한 사람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沈從文은 절박한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의 한계를 뛰어넘는 자유로운 상상력으로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보편적 가치와 아름다움을 문학 속에 끊임없이 그려내고자 노력한 작가이다. 따라서 作品에 抒情的 분위기가 넘쳐흐르는 것은 沈從文의 湘西를 제재로 한 小說이 “抒情詩의 화보”라고 불릴 정도인 것이다.

沈從文의 작품을 읽어 내려가면 그가 살았던 구체적인 시대적 환경은 중요하지 않고 작품 그 자체에 담겨져 있는 시공을 가로 넘은 본질적인 삶의 문제가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邊城>에서 보여주고 있는 애정의 모티브는 훼손된 현실, 불합리한 현실의 반대의 의견으로서, 인간이 추구해야 할 이상의 대상으로 작가의식 속에 영원히 상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현대 중국인들이 갈망하는 자유와 민주와 평등의 공간이다. 이는 작가의 抒情的인 인식행위와 가치판단이 합쳐진 미적반영의 결과물이다. 작가는 자아와 세계, 주체와 객체를 상호 융합하려는 抒情的 관점으로 대상을 인식하려고 하고, 이런 인식이 원활하게 수행되는 제재로 유년, 자연, 대지, 애정을 사용했다.

---

85) 에밀 슈타이거, 李裕榮, 吳賢一共譯, 《詩學의根本概念》, 삼중당, 1978, pp.82-99.

## 第6章 結論

1930년대 이후 중국의 현대 문학은 전성기를 맞이하는데, ‘英雄出亂世’라는 옛 말처럼 중국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문학계에는 굵직한 인물들이 배출되었다. 문학계는 이러한 혼란과 대립 속에서 각 유파들간의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문학의 장르 또한 다양해져서 詩, 小說, 戲曲, 散文 등이 활발히 창작되었음은 물론 질적인 면에서도 문예 부흥기라 할 만한 결과물들이 속속 출현하게 되었다.

그 와중에 <邊城>은 1930년대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沈從文은 苗族과 漢族의 혼혈이라는 血統으로 인하여 다른 작가들과 달리 少數民族에 대한 의식이 남다르며, 어린시절 湘西에서 자연과 함께 성장하며 형성된 ‘시골사람’ 意識이 이후에 그의 문학 창작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는 향촌 세계와 물질문명 세계의 대립과 갈등 구조가 점차 고조되어 가는 시점에서 이러한 대립, 갈등관계를 해소하는 것은 문학 창작자의 공동의 가치와 미학이상으로 여기는 시대와 맞물려 있었다.

沈從文은 자신이 創作하는 모든 작품들에 自然의 건강한 生命을 부여하려 하였으며, 이러한 生命現狀을 통해 자신이 어린 시절 경험하였던 湘西의 아름다움과 자연스러운 人性에 어긋나지 않는 生命形式을 표현하려 하였다. 이를 위해 沈從文은 湘西世界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깊은 애정으로 표현하였으며, 동시에 이 대상들에게 자신의 미래의 이상을 기탁 하였다. 이러한 生命意識은 沈從文이 初期創作에서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온 하층민에 대한 긍정적인 人性의 모습으로 표현되었고, 沈從文이 진정으로 주의를 기울였던 湘西 사회의 변동 하에서 湘西 하층민들의 生命形式 이었다. 이에 沈從文은 여러 종류의 문화가 복합되어 본연의 풍속, 습관을 상실하고 있는 湘西의 人生形式에 대한 탐색을 시도하게 되었다.

<邊城>은 작가의 독특한 인생 경험과 인생관 혹은 문학관의 결과이다, 문학 예술 작품으로서의 독자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제한된 시기에 발생하는 그 시대만의 특정한 잣대만을 가지고 작품을 평가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잘 말해주는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創作背景과 작가의 文學觀을 염두에 두고 본고에서는 <邊城>의 人物분석과 主題分析에 중점을 두고 고찰해 보았다. 먼저 人物 分析에서는 작품의 주요 인물인 翠翠, 天保, 傩送, 曠, 曠, 順順에 대해 살펴보았다.

翠翠는 소설의 여주인공으로 曠의 딸로 태어나는 新世代의 인물로 형상화되어 있고, 그녀는 舊世代가 지닌 건강한 人性을 계승하면서도 넘치는 生命力으로 運命을 헤쳐 나갈 수 있는 積極的인 인물이다. 또한 작가는 자연에 기초한 翠翠의 성격을 통해 다듬어지지 않은 人間本然의 人性을 생동감 있게 형상화 해냈다.

天保와 傩送은 船主 曠의 아들로, 건강한 人性을 지니며 湘西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젊은이들이며, 茶峒 사람 특유의 건강한 人性을 지니면서도 愛情觀에 있어서는 對照的인 性格을 가지고 있다. 이런 성격의 비교를 통해 天保는 現實的이면서도 外向的인 性格을 가지고 있고, 傩送은 순수한 애정을 추구하며 內省的이며 感性的인 性格을 가지고 있다.

曠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舊世代 代表 인물로 과거 湘西 사람들이 지녔던 ‘人性美’의 대표적 인물로 형상화되어 있다. 이런 曠의 성격은 茶峒 사람에게 普遍的으로 內在되어 있는 것이기에 曠과 茶峒 사람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順順은 부두를 관리하는 성공한 商業階層 사람으로, 사리가 分明하고 正直하며, 人情이 많고, 재물에 욕심이 없으나 작가는 그의 結婚觀을 통해 現代物質文明下의 商人이라는 二重性을 부여하고 있다. 순수한 人性을 지니면서도 결혼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서 그는 商人의 속성을 드러낸다. 하지만 작가는 건강하고 人情美 넘치는 人性을 더욱 부각시키며 그를 肯定的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沈從文은 작품의 모든 인물들에게 건강하고善良的 人性을 부여하였다. 특히 人性美의 대표자라 할 수 있는 曠과 翠翠의 형상은 잘 묘사 되었지만 나머지 인물들은 각각의 성격이 두드러지지 않게 묘사 되었다. 그러나 작가는 순박하며 건강한 인물을 등장시켜 건강하고 순수한 人間本然의 삶을 보여 주려 했다.

이러한 思想과 觀念下에서 作家 沈從文은 自然은 인간과 하나의 共同體임을

強調하며, 자연과 융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으며, 산, 나무, 돌 등 자연의 구성물들이 자연의 품속에서 자라고, 생명을 다한 후에는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것은 인간의 삶 역시 자연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며, 인간은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바깥의 자연세계로부터 고립되어 사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일체가 되어 조화를 이루며 사는 서정소설로서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자연과 人物이 하나로 결합되고, 自然은 인물의 행동과 삶을 상징하고 있다. 작품의 중심 소재로 등장하고 있는 自然의 景物들은 단지 하나의 자연적 배경으로서만 그 역할을 끝내지 않고, 인간의 행동과 운명과 서로 융합하여 中國의 傳統文學에서 追求해 왔던 情景合一의 모습과 비유될 수 있는 형상을 이룩해 냈다.

沈從文的 작품에 대해 사람들은 하나같이 장편시 같은 小說이라고 평가한다. 아름다운 작가의 내면이 그대로 문체 속에 투영되어 있음은 물론, 작가 의식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소설 <邊城>은 인류가 추구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사상을 담고 있는 찾기 힘든 작품으로 다시금 재평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參考文獻》

### 文集類

- 沈從文, 《沈從文文集》 1~12권, 廣州:花城出版社, 1992  
沈從文, 《從文自傳》, 廣州:花城出版社, 1992  
沈從文, 《沈從文小說選》上,下, 人民大學出版社, 1995  
沈惠英 譯, 《변방의도시》, 《中國現代文學全集》第6卷, 서울: 중앙일보사, 1989

### 單行本類

- 가라타니 고진 著, 박유하 譯, 《풍경의 발견》, 일본근대문학의기원, 민음사, 1997  
金時俊 著, <中國現代文學史>, 서울: 지식산업사, 1992  
김영구, 김시준 共著, 《中國現代文學論》, 서울: 방송통신대학출판부, 1995  
佐伯有一, 野村浩一 著, 吳相勳 譯, 《中國現代史》, 서울: 한길사, 1980  
朱德發, 《중국현대문학운동사 I》, 임춘성 譯, 전인, 1989  
池田誠, 《中國現代革命史》, 韓善模 譯, 서울: 靑史出版社, 1985  
에밀 슈타이거, 李裕榮, 吳賢一 共譯, 《詩學의 根本概念》, 삼중당, 1978  
崔載瑞, 《文學原論》, 서울: 春潮社, 1963  
  
黃修己, 《中國現代文學發展史》, 中國青年出版社, 1997  
吳立昌, 《沈從文-建築人生神廟》, 復旦大學出版社, 1991  
陳壽立 編, 《中國現代文學運動史料摘編》卷上, 北京出版社, 1985  
凌宇, 《從邊城走向世界》, 三聯書店, 1986  
凌宇, 《沈從文傳》, 北京十月文藝出版社, 1991  
邵華強 編, 《沈從文研究資料》上,下, 廣州:花出城版社, 1991

### 論文類

- 강경구, <沈從文 邊城에 나타난 강물의 상징>, 중국어문학21집, 영남중국어문학회, 1992  
김성동, <沈從文 後期 鄉土 小說의 現實認識>,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方準浩, <邊城에 나타난 鄉土的 浪漫性 研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徐鳳植, <沈從文 文學의 鄉土意識 研究- 小說(邊城)을 中心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안승용, <변방의 어느 마을(邊城) 主題研究>,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林慈英, <沈從文의 湘西小說의 人性美 研究-(丈夫), (貴生), (邊城)을 中心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崔順美, <沈從文의 (邊城), (長河) 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황보정하, <沈從文 小說研究-물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李銳, <中國人的慢性鄉土病> 《山西文學》, 1983년 第4期

李初梨, <怎樣的建設革命文學> 《文學運動史料選》, 1979년 第2卷

劉一友, <論沈從文的鄉情及其邊城創作>, 吉首大學沈從文研究室編, 《沈從文研究》, 湖南大學出版社, 1988년 제1집.

孫韜龍, <談沈從文‘鄉下人’概念>《沈從文研究》, 吉首大學沈從文研究室編, 湖南大學出版社, 1988년 제1집.

陳旭, <試論邊城的“返樸歸真”特色>, 《中國文學研究》, 1990년 第3期